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21, Vol. 33, No. 1, 113-158

상담전문가의 정체성 연구*

안 수 정 연세대학교 대학원생

안 하 얀† 용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교수

서 영 석 연세대학교 교수

상담은 무엇이고 상담전문가는 누구인가? 본 연구는 상담이 전문적인 영역으로 자리잡아 오는 동안 우리나라 상담자들이 계속해서 고민해왔던 정체성 관련 질문에 대해 현재의 관점에서 그 답을 찾고 있다. 이를 위해 연구자들은 상담실무자들이 상담(사)에 대해 어떻게 정의하는지, 인접분야와는 어떻게 다르다고 인식하는지 살펴보는 한편, 상담(사)에 대한 상담수요자들의 인식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전문가 자격증을 보유한 926명의 학회원들과 상담경험이 있는 일반인 328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정된 합의적 질적연구 방법을 통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담실무자와 일반인들은 일정한 조건(전문적·인간적 자질, 공인된 자격, 사회·윤리적 책임의식)을 갖춘 전문가가 특정 역할(정서적 지원, 적극적 안내, 인지적 이해, 변화의 지렛대, 관여적 상담파트너)을 수행함으로써 문제를 호소하는 내담자의 주관적 세계가 변화하고 회복되도록 조력하는 과정을 상담이라고 인식하였다. 한편, 상담사들은 일반인이 보고하지 않은 전인적 성장과 예방, 내담자의 잠재력과 주체성, 관계 및 협력, 전문성 향상의 주체로서의 역할 등을 전문직 정체성을 이루는 주요 요소로 강조하였다. 반면, 상담경험이 있는 일반인들은 지식·지혜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방안을 안내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상담사의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상담교육 및 훈련, 학회가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논하였다.

주요어 : 상담, 상담전문가, 정체성, 상담수요자, 인접 분야와의 차이점, CQR-M

---

* 본 연구는 2020년도 한국상담심리학회 중장기발전TFT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분석 결과에는 2019년 한국상담심리학회 중장기발전TFT에서 진행한 연구 자료 중 일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구결과 발표 및 출간에 대해 2020년 동학회 운영위원회의 승인(2020. 2. 14)을 받았음.

† 교신저자 : 안하얀, 용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54
Tel : 02-6964-7059, E-mail : hayan@yongmoon.ac.kr

www.kci.go.kr

전문직 정체성(professional identity)은 '자신을 전문가로 바라보고, 전문적 기술과 태도를 통합하여 전문직 공동체의 맥락 안에서 자신을 인식하는 것'(Gibson, Dollarhide, & McCallum, 2010)을 의미한다. 전문직 정체성은 내부적으로는 고유한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는 틀이 되며(Brott & Myers, 1999), 외부적으로는 다른 직업과 구분하게 하는 기준이 된다(Weinrach, Thomas, & Chan, 2001). 상담 역시 전문 직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그동안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문화 운동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전문화(professionalization)란 특정 직군이 직업적 전문성을 획득해가는 과정(Evetts, 2006)을 의미하는데, 전문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집단의 정체성이 확립되어야 하고(Owens & Neale-McFall, 2014), 집단의 정체성이 확립되기 위해서는 직군의 전문성이 공고해질 필요가 있다(MacDonald, 1995).

미국에서는 '전문화 전쟁(the battle of professionalism)'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오랜 기간 상담(직)의 전문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 그 결과 모든 주에서 상담이 법제화되고 상담 전문직의 정체성 또한 공고해지는 효과가 있었다(Bartolo, 2005). 한편, 상담직의 전문성과 정체성은 특정 시점에 완성되어 영구히 고착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맥락의 요구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상담이 전문직으로 자리매김하고 그 위치를 공고히 하는 일은 모든 시대에 걸쳐 상담전문가들이 수행해야 할 과업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1년 미국상담학회(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가 주관한 '20/20 상담의 미래를 위한 비전(20/20: A Vision for the Future of Counseling initiative)' 프로젝트에서는 상담사가 전문직으로 자리매김하는 일이 여전히 중요한 학회의 비전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담 및 상담사가 현재 전문직으로서 어떤 정체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상담실무자와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지난 반세기 동안 상담전문가를 양성하고 전문지식 및 윤리 규범을 형성하는 등 한국 상담의 전문성과 정체성 발달을 이끌어온 한국상담심리학회는 국내 상담전문가들이 지니는 정체성의 결정적 응집소라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전문화'는 정체성 외에도 직업 행동의 규범, 전문적 교육과 훈련, 전문지식, 고객에 대한 의무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MacDonald, 1995), 전문화에 대한 학회의 책무는 막중할 수밖에 없다. 특히, 내담자를 위한 옹호만큼이나 상담 및 상담심리사들을 옹호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서영석, 안수정, 안하얀, 이소연, 2019), 학회가 학회원들의 전문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학회의 존재 이유 중 하나이자 핵심적인 정체성이라 할 수 있다.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상담은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 전문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민간자격증들이 난립하고, 상담사와 관련된 윤리적인 문제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상담전문가 집단이 국민들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서영석 등, 2019). 또한 상담심리사들의 낮은 처우와 복지, 일자리 문제 등도 심각해서 이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회원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서영석 등, 2019). 정신과 전문의, 간호사 등과 같은 다른 정신건강 직업 분야의 경우, 법적 지위를 확립한 후 그것을 토대로 실무진들의 직업 활동이 활발해

www.kci.go.kr

지는 단계로 발전해왔다면(정민승, 2010), 상담 분야는 실무자들의 활발한 직무 활동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문적 직업 정체성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상담실무자들은 이미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실존'하지만, 무엇을 어디까지 수행하는 직업인가에 대한 '본질'은 명확하게 세워져 있지 않은 것이다. 더욱이 전문직으로서 상담심리사의 차별적 정체성이 무엇인지, 상담의 정의 및 범위, 상담사의 역할 및 직무에 대한 합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현장에서는 내담자의 심리내적인 문제뿐 아니라 상담 관련 행정, 유사 전문 직종과의 협업, 보다 직접적인 복지 관련 서비스 제공 등 '전통적인 상담'에서 요구하는 것과는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상담심리사들이 증가하고 있다(허재경, 신영주, 2015). 이때 상담사들은 자신이 교육과 훈련받은 내용과 상이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Marcia(1966)의 정체성 이론에 비추어봤을 때 상담사들은 '정체성 유예'의 단계에 놓여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정체성은 하나의 고정된 기원에서 직선적으로 형성되지 않는다(Hall, 1968). 상담의 정체성은 학위과정 입문부터 상담을 그만두는 순간까지 지속적이고 역동적으로 개발되는 것으로(Gibson et al., 2010; Owen et al., 2014),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다(Kearny & Shnha, 1988). 학회는 현재의 시대적, 맥락적 변화에 맞춰 학회원들이 상담을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자신의 역할을 무엇이라 인식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질문하고, 그에 대해 가변하는 답을 찾아 나가야 한다. 더욱이 다양성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근대적 의미의 단일하고, 고정적이며, 불변의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배제와 폭력의 개념(김정현, 2010)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의 상담 및 상담전문가에 대한 정체성을 보다 맥락적이고 다차원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상담심리학회는 향후 상담심리사 및 학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결정할 수 있고, 학회원들의 정체성에 맞는 비전을 재정립하고 목표와 전략을 수립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상담을 수행하는 전문가들이 상담에 대한 합의된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한다면, 일반인들은 상담을 더욱 모호하고 제한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Kaplan, Tarvydas, & Gladding, 2014). 이에 미국상담학회는 20/2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상담이란 무엇이며, 인접 전문분야와의 차별성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들을 수행하였고(Kaplan et al., 2014; Mellin, Hunt, & Nichols, 2011),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합의된 상담의 정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현재 미국에서 다양한 연구 및 상담 현장에서 가장 보편적인 상담 정의 중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상담학회 산하의 29개 주요 학회들을 대상으로 상담의 정의를 도출한 델파이 연구(Kaplan et al., 2014) 결과, 상담은 '다양성을 지닌 개인, 가족, 집단이 정신건강, 웰니스, 교육, 진로 목표 등을 성취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전문적 과정과 관계'로 정의되었다.

서구에 비해 상담의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고, 열악한 업무환경과 낮은 처우 가운데 상담사들이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담의 전문직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작업은 매우 절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 및 상담전문가의 정체성을 탐색하고 확립하기 위한 국내연구들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www.kci.go.kr

실정이다.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에 게재된 논문들(박애선, 황미구, 2008; 이은경, 양난미, 서은경, 2007; 장성숙, 2002)은 한국에서 상담이란 무엇인지 그 본질적 의미를 탐색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장성숙의 연구(2002)는 엄부자모 또는 어른으로서의 상담자상을 제시하며 우리나라의 문화적 맥락에 따른 토착적 상담접근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지만, 경험적 자료 분석을 토대로 연구 결과를 제시한 것은 아니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은경 등(2007)의 연구는 상담의 정의와 한국적 상담의 독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합의된 정체성’을 확인하기보다는 소수의 참여자(상담전문가 8명)로부터 심층적인 응답을 담아냈다. 박애선과 황미구의 연구(2008)는 상담심리사 46명과 일반인 306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발달과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두드러진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에서는 상담의 정체성을 학문적 정체성, 전문가적 정체성, 상담조직의 정체성으로 분류하고, 전문가적 정체성을 상담사에게 필요한 직무능력 및 특성으로 특정하여 객관식으로 질문하였다. 이러한 top-down 방식의 설계는 전통적 또는 이론적으로 개념화된 정체성을 재확인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 상담사의 능력이나 특성이 정체성의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상담사의 정체성의 일부 측면만을 조명하게 되는 한계가 있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은 한국 상담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의 궤적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의를 지니지만, 상담실무자 다수의 참여와 합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결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본 연구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상담실무자들이 ‘지금-여기’에서 경험하고 있는 정체성에 대한 목소리를 다양하게 수렴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상담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상담전문가를 어떻게 정의하는가?’라는 질문을 천 명에 가까운 상담심리사 자격증(1급, 2급) 소지자들에게 질문함으로써, 상담전문가들이 인식하는 상담 및 상담전문가의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즉, 연구 참여자들에게 고정된 상담의 정의를 먼저 제시하지 않고 개방형 질문을 통해 상담실무자들의 인식을 귀납적으로 발견하고, 다수의 상담실무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상담의 정의와 상담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한편, 해외에서는 인접 분야 간 차이를 탐색한 연구들이 활발히 수행되어 왔다(MacLeod, McMullen, Teague-Palmieri, & Veach, 2016; Mellin et al., 2011). 그 이면에는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정신건강 분야 간 효율적인 협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건강 전문가들 간에 차별적인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할 경우 역할과 책임에 대한 혼란, 권력과 지위를 둘러싼 갈등, 전문가 간 협력을 위태롭게 하는 고정관념의 확산 등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는 자각(King & Ross, 2003; Mellin et al., 2011; Waxman, Weist, & Benson, 1999)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2019년 한국상담심리학회 중장기발전TFT에서 실시한 포커스그룹 인터뷰에서 국내 상담실무자들 또한 상담심리사의 역할 및 직무 범위에 대한 뚜렷한 기준의 부재, 유사・인접 분야와의 갈등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안하얀, 이소연, 서영석, 안수정, 2019). 이에 본 연구자들은 인접 분야와의 직무경계 및 차별적 정체성을 탐색함으로써 상담 및 상담전문가의 고유성이 명료하게 드러

www.kci.go.kr

날 것으로 판단하였고, '상담은 정신건강 인접 분야와 어떻게 구분되는가?'라는 연구문제를 추가로 설정하였다.

전문직 정체성은 전문가와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들이 함께 형성하는 것으로(MacLeod et al., 2016), 상담의 방향과 가치가 대중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Campbell (1996)은 전문가들이 모든 것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권위에 대한 유혹'(Eddy & Billings, 1988)을 버리고, 대신 다중 이해관계자 모델(Wennberg, 1988)을 기반으로 다양한 주체자들의 관점을 통합적으로 살피는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와 수요자 간 인식과 경험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에 대한 성과기대가 낮아지거나 전문가에 대한 불신, 수요자의 심리적 불편감 등이 초래될 수 있다(Campbell, 1996; Garland, Lewczyk-Boxmeyer, Gabayan, & Hawley, 2004; MacLeod et al. 2016). 이에 다른 전문분야에서는 전문가와 수요자의 관점을 함께 살펴보려는 노력들이 진행되었는데, 예를 들어 경찰의 핵심가치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와 수요자 간 인식 차이(백병성, 2014), 회계감사원과 고객의 정체성 인식(Bauer, 2015) 등 정체성 확립에 있어 수요자의 관점을 반영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

그동안 상담 분야에서도 상담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점을 확인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져 왔는데, 대표적으로 금명자(2002)는 상담전문가와 청소년 내담자가 상담에 대해 서로 다른 기대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상담전문가와 달리 청소년 내담자는 상담전문가의 지시적인 태도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상담전문가에 대한 이미지(손난희, 김은정, 2007)와 상담 정보를 얻는 경로(Wantz & Firmin, 2011), 상담전문가의 능력에 대한 신뢰와 정신건강 전문가에 대한 선호도(Fall, Levitov, Jennings, & Eberts, 2000), 상담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규진, 이지미, 이수정, 이도형, 2016; 홍혜영, 2006) 등에 대한 일반인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노력해 왔다. 그러나 상담의 정체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반인들의 시각을 탐색한 연구는 발견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반인들이 자신이 경험한 상담 및 상담사의 전문성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상담의 정체성에 대한 수요자의 관점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일반인들이 자신의 실제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상담전문가가 어떤 역할을 해주었다고 느끼는가?', '그 결과 어떤 도움을 받았다고 인식하는가?'를 연구문제로 설정하였다.

종합하면, 상담에 대한 상담실무자들의 정의 외에도 인접 분야와의 차이점, 상담수요자들의 인식 등 다양한 차원에서 상담(전문가)의 정체성을 탐색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상담 및 상담전문가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 단계에 걸쳐 연구를 수행하였다(그림 1 참조). 첫째, 상담실무자들이 상담 및 상담전문가를 어떻게 정의하고 개념화하는지 살펴보고, 둘째 상담실무자들은 상담이 정신건강 관련 인접 분야와 어떻게 차별화된다고 인식하는지를 확인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상담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일반인들이 상담과 상담전문가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상담실무자 및 일반인들이 인식하는 '상담 및 상담전문가는 무엇인지'를 통합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상담의 전문직 정체성을 입체적으로 개념화하고, 이를 통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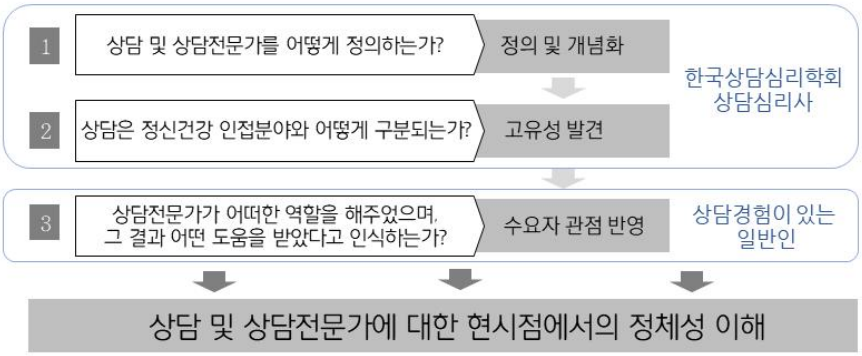

그림 1. 전체 연구 흐름도

해 학회의 비전과 목표, 발전전략 등을 구상하는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방 법

연구 참여자

우선, 상담실무자들이 상담 및 상담전문가를 어떻게 정의하고 인접한 정신건강 분야와 어떻게 구분된다고 인식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학회 제반 활동에 대한 한국상담심리학회 회원들의 만족도 및 요구를 확인한 2019년 연구 자료 중 분석되지 않은 일부 자료를 활용하였다(서영석, 안하얀, 안수정, 이소연, 2019). 해당 연구에서는 상담전문가 자격(상담심리사 1급, 상담심리사 2급)을 취득하고 2019년 현재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학회원 926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중 1급 상담심리사는 275명(30.02%), 2급 상담심리사는 641명(69.98%)이었으며, 여성은 799명(87.23%), 남성은 117명(12.77%)이었다.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42.55세(범위 = 25-74세, *SD*=9.38)였고, 평균 상담 경력은 100.16개월(범위 = 6-568개월)이었다. 연구 참여자 중 421명(45.96%)은 서울 지역에서 근무하였고, 경기도 244명(26.64%), 경상도 106명(11.57%), 충청도 54명(5.90%), 전라도 32명(3.49%), 강원도 31명(3.38%), 제주도 1명(0.11%), 기타 27명(2.94%)이었다. 근무기관은 대학부설 상담센터가 234명(25.55%)였고, 정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상담센터 231명(23.25%), 개인운영 상담센터 146명(15.9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다 자세한 연구 참여자 정보는 2019년 연구(서영석 등, 2019)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상담 및 상담전문가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담 관련 교육 및 훈련을 받은 경험이 없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상담에 대한 막연하고 모호한 인상만으로 응답하지 않고, 실제 자신의 상담 경험을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근거 있는 응답을 수집하기 위하여 상담서비스를 한 번 이상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일반인들로 참여자를 한정하였다. 최종적으로 328명이 설문에 응답하였고, 이중 여성은 176명(53.66%)이고, 남성은 152명(46.34%)이었다. 일반 참여자들의 연령은 20대

www.kci.go.kr

가 156명(47.56%)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106명(32.32%), 40대 55명(16.77%), 50대 6명(1.83%), 60대 이상은 3명(0.91%)이었고, 2명(0.61%)은 10대였다. 참여자 중에서 학사 학위 소지자는 185명(56.40%)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에 재학 중인 응답자가 74명(22.56%), 고등학교를 졸업한 응답자는 36명(10.98%), 석사 학위 소지자는 22명(6.71%)이었다. 거주지역의 경우, 서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응답자는 100명(30.49%)이었고, 경상도 76명(23.17%), 경기도 73명(22.26%), 충청도 32명(9.76%), 전라도 18명(5.49%), 강원도 10명(3.05%) 순으로 많았으며,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각각 3명(0.91%), 1명(0.30%)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직업을 살펴보면, 참여자의 31.71%인 104명이 사무직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대학원생이 76명(23.17%), 전문직 31명(9.45%), 서비스직 20명(6.10%), 생산/노무직 13명(3.96%), 교직 12명(3.66%), 자영업 10명(3.05%) 순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질문지

개인정보 질문지

상담실무자들은 설문에 응답하기 전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 성별, 연령, 학력, 상담 경력, 고용형태, 근무형태, 대표 근무기관, 근무 지역 등을 보고하였고, 상담 경험이 있는 일반인들은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상담서비스 이용횟수 및 기간, 이용기관, 상담을 받게 된 이유 및 주제 등을 보고하였다.

정체성 및 역할 설문지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우선, 상담 및 상담전문가에 대한 전문직 정체성과 관련된 문헌 연구(박애선, 황미구, 2008; 장유진, 2015; MacLeod, McMullen, Teague-Palmier, & Veach, 2016; Mellin et al., 2011; Moss, Gibson, & Dollarhide, 2014)를 통해 정체성의 정의, 구성요소, 측정방법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자신의 직업에 대해 스스로 부여하는 의미, 역할, 철학, 접근 방식 등에 대한 정의(Healey & Hays, 2011; Brott & Myers, 1999; Smith & Robinson, 1995)와 다른 직업과 구분하게 하는 독특성(신원식, 이경은, 2005) 등이 전문직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선행연구의 제언들을 고려하여 설문의 내용과 형식을 구상하였다. 그 결과 상담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질문은 상담 및 상담전문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 깊고 다양하게 고민해볼 수 있도록 개방형 질문의 형태를 취하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를 담아 상담에 대한 정의('귀하는 상담전문가로서 "상담"을 어떻게 정의(define)하십니까?'), 상담전문가에 대한 정의('귀하는 "상담전문가"를 어떻게 정의(define)하십니까?'), 인접 분야와의 차이('귀하는 "상담"이 다른 정신건강 분야[예, 정신의학, 임상심리, 사회복지 등]와 어떻게 구분된다(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를 물었다.

한편, 상담 및 상담전문가에 대한 수요자들의 인식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반인을 위한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응답자들이 상담을 받았던 실제 경험을 떠올리며 상담 및 상담전문가에 대한 실제적 인식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도록 상담서비스를 받은 경험(예,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어려움 때문에 상담을 받으셨나요?')부터 상담을 받았던 계기와 주제영역, 만족도에 대한 질문을 우선 제시하였다. 이후, 상담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만족스러웠던 것을 구체적으로 떠올리도록 하였고, 상담전문가가

www.kci.go.kr

무엇을 해주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를 차례로 응답할 수 있도록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상담실무자와 달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질문이라는 점에서 함축적인 용어(예, 정의, 역할 등)의 사용을 지양하고 최대한 직관적으로 수요자로서의 자기 경험을 기술할 수 있도록 문항을 제작하였다.

연구자들은 설문지를 작성한 후 설문지에 대해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구하였다. 구체적으로, 상담실무자를 위한 설문지는 상담 실무 현장에서 상담심리사로서 근무하고 있는 3인으로부터 2회에 걸쳐 문항의 적절성에 관해 자문을 구하였다. 일반인들을 위한 설문은 상담전공 교수 2인에게 감수를 받은 후 피드백을 반영하여 설문지의 내용을 수정하였고, 이후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일반인 6명에게 예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질문에 대한 이해도, 응답할 때의 어려움, 전체적인 문항 순서의 적합도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한 후 이를 반영하였다.

자료 수집

상담실무자에 대한 설문의 경우, 학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단체 메일과 문자, 자격 소지자들로 구성된 SNS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온라인 설문링크가 포함된 안내글을 게시하였다. 또한 학회 교육연수회에서 주관하는 하계교육연수에 참여한 자격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설문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에서 '정체성 및 비전' 영역에 대한 응답 내용을 분석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상담실무자 926명 중에서 해당 문항에 대해 지나치게 짧거나 질문에 적합하지 않은 응답을 한 10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916명의 설문결과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일반인들에 대한 설문조사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성별과 연령, 거주지역 등의 비율을 고려해서 자료를 수집하고자 온라인 리서치 전문 업체를 통해 조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학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별도로 제작한 온라인 설문링크가 포함된 연구 안내글을 게시하고, 상담이 종결된 내담자 또는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 지인들에게 설문을 안내해 줄 것을 독려하였다. 또한 연구자들의 지인을 통해 온라인 설문주소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 링크하여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설문에 응할 수 있게 하였다. 온라인 설문 첫 페이지에는 연구 목적과 연구 대상, 참여 방법, 비밀보장 및 참여자 혜택 등을 기술한 연구 설명문을 먼저 읽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설문 참여에 동의하면 설문이 시작되도록 하였다. 본 연구가 상담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업란에 '상담심리사 또는 상담수련생'을 체크하거나 상담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체크할 경우 설문은 자동적으로 종료되었다. 설문에 참여한 일반인 328명 중에서 각 주관식 문항에 마침표만 찍는 등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2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총 326명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

연구 개시 시점에 상담 및 상담전문가의 정체성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참여자들의 고유하고 독특한 인식들을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수정된 합의적 질적 연구 방법(Consensual

www.kci.go.kr

Qualitative Research-Modified; CQR-M)을 활용하였다. Hill(2012)이 권장한 CQR-M은 다수의 연구자 간 합의를 통해 단일 연구자의 편향을 최소화할 수 있고, 연구자들의 다양한 관점을 포함시킴으로써 단일 평정자가 놓칠 수 있는 섬세한 요소들을 밝힐 수 있다는 CQR의 장점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이에 더해 CQR-M은 큰 표본의 질적 자료로부터 정성적 결과를 도출하기에 유용한 방법으로, 다량의 자료로부터 결론을 추론하는 귀납적 방식을 통해 기존의 고정된 개념에 갇히지 않은 새로운 생각이나 현상에 대한 탐색을 가능하게 한다(Hill, 2012). 따라서 연구자들은 CQR-M이 한국의 상담실무자 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역동적인 정체성을 심층적이고도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어 본 연구에 적합한 방법이라고 판단하였다.

연구자들은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상담실무자 916명의 자료와 일반인 326명의 자료에 대해 각각 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세 명의 연구자들은 모두 CQR을 활용한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실제 상담 현장에서 상담 또는 수련감독을 수행하고 있는 상담실무자, 교육자들이다. 자료 분석에 앞서 연구자들은 상담에 대한 각자의 인식과 경험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 그것이 자료를 분석하는데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논의하였다. 연구자들은 자신이 갖고 있을 수 있는 편향된 시각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이를 최대한 균형 있게 조절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상담실무자 또는 교육자로서의 개인적 경험이 참여자들의 언어와 의미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더불어 이론적 민감성을 갖추기 위해 약 3개월 동안 상담 분야 및 전문직 정체성 관련 문헌 연구를 수행하였고, 이후 약 4개월 동안 2주에 한 번씩 만나 세 시간 가까이 합의에 이를 때까지 함께 논의하였으며, 감수 후 재검토하는 순환 과정을 거쳤다. 모든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동등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었다.

구체적으로, 연구자들은 상담실무자들로부터 수집한 주관식 응답을 각자 독립적으로 유사한 내용들로 분류하고 영역화한 후, 응답 내용을 다시 의미 단위로 분석하여 핵심 개념을 추출하였다. 이후, 연구자들은 함께 모여 서로 일치/불일치하는 부분을 확인하였다. 이때 핵심 개념은 연구자들의 추론을 최대한 배제하고 참여자의 응답이 충실하게 반영되도록 요약했으며, 서로 불일치한 경우 연구자들은 원자료를 함께 읽으면서 참여자의 의미를 적확하게 반영하는 분류 및 명칭에 대해 만장일치에 이를 때까지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 평정자 간 일치도를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분석 과정에서 CQR을 활용하여 질적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상담전공 박사과정생 1명과 현재 상담수련생인 석사과정생 2명이 분석 결과를 감수하면서 핵심 개념들이 상담수련생으로서의 자신의 경험과 인식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 핵심 개념들이 적절한 영역으로 분류되었는지 검토하였다. 이후 연구자들은 감수자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원자료를 재검토하고 분석 결과에 반영하였다.

다음으로, 연구자들은 핵심 개념에 반영된 공통 주제를 설명하는 범주를 도출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자들은 영역별로 상위범주, 중위범주, 하위범주를 세분화하고 핵심 개념이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 분류하기 위해 함께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 내담자의 성장과 회복을 추구하는 상담의 성과와 관련한 핵심 내용들을 몇 개의 범주로 나누고 묶

www.kci.go.kr

을 것인지, 용어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었다. 연구자들은 회의를 통해, 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이 상담이 지닌 방향성에는 일상적인 것부터 근원적인 것까지 단계적 차이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당면과제 해결'과 '근원적 성장'으로 구분하여 범주화하는 것이 참여자들의 의미를 보다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는 데 합의하였다.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범주화 과정에서도 수시로 감수를 받고 그 의견을 검토하였다. 세 명의 감수자들은 각 핵심 개념이 정확한 범주에 속했는지, 범주 목록이 핵심 개념의 본질을 적합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모든 사례의 영역과 범주, 핵심 개념을 구성한 후, 최종적으로 두 명의 감수자로부터 전문가 평정을 받았다. 감수자들은 CQR을 활용한 연구를 수행한 경험을 다수 가지고 있으며, 실제 상담 현장에서 상담 또는 수련감독을 수행하고 있는 상담전공 교수로 구성되었다. 핵심 개념이 원자료의 본질을 정확하게 담아내고 있는지, 핵심 개념이 적절한 영역과 범주로 분류되었는지, 중요한 자료가 모두 추출되었는지 검토하였다. 연구자들은 감수자의 피드백에 대해 논의하여 분석 결과에 반영하였다. 예를 들어, 감수자는 내담자의 인지적 이해를 증진하는 상담전문가의 역할(예, 조망확장) 관련 하위범주가 '변화의 지렛대' 범주로 분류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연구자들은 원자료를 다시 검토하면서 인지적 이해 증진과 변화를 촉진하는 것이 완전히 일치되지 않으며 특히 일반인들은 이를 다른 의미로 보고하고 있다고 판단하였고, 감수자와 이 부분에 대해 다시 논의하여 기존의 분석 결과를 유지하였다. 반면, 연구자들은 초기에 명명한 하위범주인 '지시적 안내'는 감수자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적극적 안내'로 범주명을 최종적으로 수정하였다. 상담실무자들로부터 수집한 자료에 대한 분석을 마친 후, 연구자들은 일반인들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결 과

상담실무자와 일반인들로부터 수집한 각각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상담실무자들이 인식하는 상담과 상담전문가', '상담 경험이 있는 일반인들이 인식하는 상담과 상담전문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때, Spangler, Liu와 Hill(2012)의 제언에 따라 각 범주가 전체 사례를 얼마나 대표하는지를 명시하기 위해 빈도 및 비율을 함께 제시하였다. 각 범주의 반응 수를 해당 영역의 총반응 수로 나눈 비율이 30% 이상 차이가 날 때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Spangler et al., 2012).

상담실무자들이 인식하는 상담과 상담전문가

상담실무자들이 인식하는 상담과 상담전문가는 크게 세 개 영역('상담의 정의', '상담전문가에 대한 정의', '정신건강 인접 분야와 구분되는 상담의 고유성'), 12개의 상위범주, 21개의 중위범주, 그리고 96개의 하위범주로 구분되었다. 영역별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역 1: 상담의 정의

상담에 대한 상담실무자들의 정의 속에는

www.kci.go.kr

표 1. 영역 1: 상담의 정의

상위범주	중위범주	하위범주	빈도(명)	비율(%)
상담의 성과: 내담자의 회복과 성장	당면과제 해결	문제 및 어려움 해결	129	9.49
		심리정서적 건강 회복	62	4.56
		대인관계적/사회적 적응	61	4.49
		고통 경감 및 상처치유	57	4.19
		대처능력 개선	31	2.28
		계	340	25.02
	근원적 성장	성장과 변화	152	11.18
		삶의 질과 복지 향상	82	6.03
		자기다운 삶 발견	59	4.34
		계	293	21.56
상담의 과정: 두 주체의 협업	공동작업	문제탐색 및 상황조망	97	7.14
		이해와 통찰	84	6.19
		삶의 방향과 의미 찾기	40	2.95
		자원 발견과 활용	39	2.87
		수용과 인정	21	1.55
		목표 및 전략수립	12	0.88
		계	293	21.58
	치료적 관계	협력과 소통	128	9.43
		진정한 만남	34	2.50
		계	162	11.93
상담전문가의 역할: 적극적 조력	함께하기	공감과 경청	68	5.01
		동행	67	4.93
		함께 버티고 견딤	12	0.88
		안전한 공간 조성	9	0.66
		계	156	11.49
	이끌어 주기	적극적 지원 및 개입	26	2.13
		지식 및 지혜 나눔	29	1.91
		방법 및 방향성 안내	12	0.88
		계	67	4.93
	복돋아 주기	지지와 임파워먼트	25	1.84
		교정적 관계 경험	13	0.96
		촉진	10	0.74
		계	48	3.53
계			1,359	100

주. 각 범주의 반응 수를 해당 영역의 총반응 수로 나누어 비율을 제시함.

www.kci.go.kr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응답자들은 상담을 내담자가 주체가 되어 상담전문가와 함께 내담자의 회복과 성장을 이루어가는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연구자들은 상담에 대한 상담실무자들의 정의를 '상담의 성과: 내담자의 회복과 성장', '상담의 과정: 두 주체의 협업', '상담전문가의 역할: 적극적 조력' 등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상담에 대한 상담실무자들의 정의를 표 1에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담의 성과: 내담자의 회복과 성장

상담실무자들은 상담을 일관된 방향성을 가진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대다수의 참여자들은 상담이 내담자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뚜렷한 목표 지향성을 지닌다고 보고하였고, 연구자들은 이를 회복과 성장의 의미를 기준으로 '당면과제 해결'과 '근원적 성장' 두 개의 중위범주로 구분하였다. 우선, '당면과제 해결'은 내담자가 현재 봉착해 있는 어려움을 타개해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당면과제 해결' 범주에는 내담자가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 및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9.49%), 심리정서적 건강을 돌봄으로써 마음의 근육과 평온함을 길러내는 심리정서적 건강 회복(4.56%), 대인관계적, 사회적으로 보다 잘 적응할 수 있게 되는 것(4.49%), 현재 겪고 있는 내담자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상처를 치유하는 것(4.19%),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처능력을 개선하는 것(2.28%) 등이 포함되었다.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내담자가 당면해 있는 심리적,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현실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 내담자가 관계적, 사회적으로 적절하게 기능하고 적응적인 일상을 살도록 돕는 것
- 상처 입고 고통받는 내담자가 마음의 짐을 덜고 상처를 치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 개인, 집단, 조직 내에서 겪게 되는 문제에 대한 대처능력을 높이고, 새로운 대응방식을 시도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근원적 성장'은 현재의 어려움과 부적응 등을 유발하는 정서적 근원을 탐구하고 자아강도를 높일 수 있는 근본적 힘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상담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지향하는데, '근원적 성장' 범주에는 내담자의 질적, 양적 발달과 내적 통합을 이끌어내는 '성장과 변화'가 11.18%로 가장 높은 빈도로 보고되었다. 다음으로는 보다 행복하고 만족하며 풍요롭게 살아가는 '삶의 질과 복지 향상'(6.03%), 보다 순연한 자신의 모습으로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자기다운 삶 발견'(4.34%) 등이 포함되었다. 참여자 응답의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상담자와 내담자 간 관계 안에서 내담자 안의 건강성을 회복시켜 자신을 존중하고 용기 있게 살아가도록 성장할 수 있게 돕는 것
- 내담자가 심리 내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도록 조력하는 것
- 내담자가 자신의 심리적 기반을 이해하여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삶의 주체로서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

www.kci.go.kr

는 과정

상담의 과정: 두 주체의 협업

상담실무자들은 상담을 정의하면서 상담전문가와 내담자라는 두 주체가 함께 협력하여 공동으로 작업하는 활동을 의미한다고 보고하였다. 우선, 다수의 참여자들은 한 쪽으로 치우치거나 매몰되어 있던 내담자가 시각을 넓혀 핵심문제 및 상황에 대해 보다 통합적이고 객관적인 조망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문제탐색 및 상황조망' 활동이 곧 상담이라고 응답하였다(7.14%). 둘째, 상담은 내담자 스스로 자신을 이해하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여 확장해 나아가는 과정으로써, 이때 상담전문가는 내담자를 최대한 적확하고 충실하게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내담자가 자신을 '이해와 통찰'하도록 돕는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보고하였다(6.19%). 셋째, 참여자들은 상담을 내담자가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지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을 의미하며, 전문가가 내담자의 '삶의 방향과 의미 찾기' 활동을 함께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2.95%). 넷째, 상담은 궁극적으로 내담자가 건강하게 홀로 서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신의 심리적, 환경적, 물질적 자원을 발견하고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상담전문가는 그러한 내담자를 돕고 때로는 내담자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자신의 잠재력을 찾아 제시해준다고 응답하였다(2.87%). 다섯째, 상담은 내담자가 실망스럽고 받아들이기 힘든 자신의 모습조차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것을 점차 수용해가는 과정으로, 이때 상담자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내담자를 인정해주는 등 내담자의 '수용과 인정' 활동을 함께 한다고 보고하였다(1.55%). 마지막으로, 상담은 합의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략을 세우고 내담자가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목표 및 전략수립'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0.88%).

- 상담자가 내담자를 정서적으로 만나 함께 하면서 내담자가 자신을 이해하고 찾아가는 과정에 동참하고 협력하는 것
- 내담자가 자신의 내면의 힘과 지혜를 찾도록 돕거나 내담자의 긍정적 잠재력을 발견해주는 것
-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는 전문가와의 상담 관계를 매개로 내담자가 온전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과정
-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던 내담자가 조망을 넓혀 문제를 해결하도록 때로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비춰주는 것

다수의 상담실무자들은 상담을 상담전문가가 내담자에게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무엇이기보다는 두 주체 간 치료적 · 협력적 관계(9.43%)이자 진정한 만남(2.50%) 자체라고 응답하였다. 이때, 내담자는 개인, 집단, 조직, 국민, 사회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담자와 내담자를 돕고자 하는 온정과 의지와 능력을 갖춘 상담자가 만나 함께하는 치료적 관계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나가는 과정
- 내담자의 호소문제를 따라가면서 내담자의 변화 동기와 결심을 강화하기 위한 내담자 중심의 협력 과정
- 내담자가 스스로 심리적 자원을 발견하고 자신의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내담

www.kci.go.kr

자와 상담자가 협력하는 과정
- 내담자의 호소문제를 해결해가기 위해 길을 떠나는 두 사람의 가장 인간적이고 깊은 만남

상담전문가의 역할: 적극적 조력

상담실무자들의 진술 중에서 네 번째로 높은 빈도를 보였던 '조력'(n = 163)은 상담전문가의 역할을 특징짓는 대표적 단어로써 상담을 정의하는 주요한 특징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상담전문가의 적극적 조력 활동을 통해 상담사와 내담자는 치료적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동력으로 내담자가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곧 상담이라고 설명하였다. 상담전문가들의 주요 역할로 세 가지 중위범주가 도출되었는데, 연구자들은 이를 '함께하기', '북돋아 주기', '이끌어 주기'로 명명하였다. 가장 빈도가 높은 중위범주는 '함께하기'였는데(n = 156), 이는 상담전문가가 내담자의 고유한 속도와 보폭을 섬세하게 이해하고, 그들의 감정과 생각, 행동과 변화 등의 시간과 과정을 비판단적으로 따라감으로써 내담자가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주관적 세계를 잘 듣고 이해하는 '공감과 경청'(5.01%), 내담자에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동행'(4.93%), 내담자의 어려움을 '함께 버티고 견딤'(0.88%), 내담자가 자신을 꺼내놓거나 새로운 경험 및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안전한 공간 조성'(0.66%) 등이 포함되었다.

-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적응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함께하는 과정
- 내담자의 욕구를 정확히 인식하고 내담자와 함께 목표를 향해 속도를 맞춰 같이 항해를 해 나가는 것
-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내담자를 상담자가 공감해주고 함께 버티고 견뎌냄으로써 내담자가 기능적으로 살아가는데 기여하는 것

'이끌어 주기'는 치유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상담전문가가 어려움을 겪는 내담자에게 지식과 지혜, 전략과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내담자가 성장과 발전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지원 및 개입'(2.13%), 상담전문가로서의 '지식 및 지혜 나눔'(1.91%), 보 다 나은 삶으로 이끄는 '방법 및 방향성 안내'(0.88%) 등이 포함된다.

- 정신적 수련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전문가가 고통을 지닌 사람과 함께 하면서 자신의 지혜를 나누고 가이드해 주는 것
- 전문적 훈련을 받은 상담자가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워하는 문제를 지닌 내담자에게 심리적 개입을 해주는 활동
- 어둠 속에서 앞이 잘 안 보이는 내담자가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일

'북돋아 주기'는 어려움에 당면한 내담자가 주저앉지 않고 일어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상담전문가가 힘과 용기를 줌으로써 버팀목이 되어주는 활동을 의미하며, 내담자에게 이미 존재하는 잠재력을 끌어내도록 격려한다는 전제를 포함한다. 참여자들은 내담자가 자신의 힘을 발견하고 강화하도록 돕는 '지지와 임파워먼트'(1.84%), 안정적이고 치료

www.kci.go.kr

적인 관계 경험을 통해 삶을 재구성하고 변화를 시도할 수 있도록 돕는 '교정적 관계 경험'(0.96%), 억눌려져 있는 인식이나 감정, 잠재력 등을 이해하고 끌어낼 수 있는 '촉진'(0.74%) 등을 통해 내담자를 북돋아 주는 것이 상담의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하였다.

- 삶의 위기의 순간에 내담자가 자신을 믿고 스스로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지지하고 도움을 주는 행위
- 그들 스스로 새로운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힘과 위로와 신뢰를 주는 것
- 내담자가 상담자와의 새로운 관계 경험을 통해 변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영역 2: 상담전문가에 대한 정의

영역 2는 현재 사회에서 상담전문가가 어떠한 실재(實在)로 존재하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상담실무자들은 상담전문가를 특정 목표 및 방향성을 가지고 일련의 역할들을 수행하되 일정 조건을 갖춘/갖추어야 하는 사람들로 정의하였으며, 연구자들은 이를 '조건', '목표', '역할' 등 3개의 상위범주와 14개의 중위범주, 45개의 하위범주로 분류하였다. 상담전문가에 대한 상담실무자들의 정의를 그림 2에 제시하였고, 범주별로 결과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조건

상담전문가로 정의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다수의 상담실무자들은 전문적 상담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적 자질'과 '인간적 자질'을 고루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사회적으로 '공인된 자격'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상담전문가의 시선이 한 사람의 내담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 내담자와 사회로까지 확장되어 '사회 · 윤리적 책임' 의식을 지닐 때 전문가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라 보고하였다. 상담전문가가 갖추어야 할 조건을 표 2에 제시하였다.

먼저, 참여자들은 인간이 경험하는 어려움과 심리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상담의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전문적 기술(26.71%), 일정 기간의 엄격하고 체계화된 교육과 수련(15.10%), 단지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체화할 수 있는 실제적 경험(7.74%), 증거기반 상담을 위한 꾸준한 연구 수행(1.94%), 넓고 객관적인 조망능력과 삶의 지혜(1.68%) 등 '전문적 자질'을 갖추기 위한 상담사들의 노력에서 전문성이 확보된다고 응답하였다. '전문적 자질'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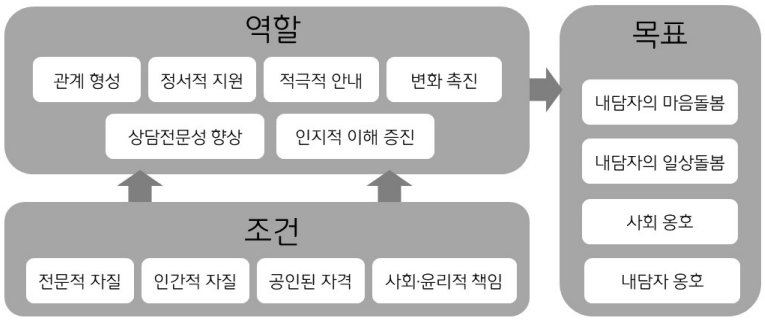

그림 2. 상담실무자들이 정의한 상담전문가

www.kci.go.kr

표 2. 상담전문가의 조건

상위범주	중위범주	하위범주	빈도(명)	비율(%)
조건	전문적 자질	전문적 지식과 기술	207	26.71
		교육과 수련	117	15.10
		실제적 경험	60	7.74
		연구수행	15	1.94
		넓은 조망능력과 지혜	13	1.68
		계	373	48.13
	인간적 자질	인간에 대한 이해와 사랑	68	8.77
		자기성찰과 마음수련	55	7.10
		성숙한 인품과 진솔성	51	6.58
		노력하는 자세	49	6.32
		돕고자 하는 마음과 유연한 태도	10	1.29
		계	233	30.06
	공인된 자격	학력, 공신력 있는 학회 소속, 시험 통과 등	73	9.42
		수련감독 자격	15	1.94
		계	88	11.35
	사회·윤리적 책임	윤리적 민감성	56	7.23
		소명의식과 사명감	13	1.68
		사회적 책무 및 옹호 의지	12	1.55
		계	81	10.45
계			775	100

주. 각 범주의 반응 수를 해당 영역의 총반응 수로 나누어 비율을 제시함.

‘공인된 자격’이나 ‘사회·윤리적 책임’ 범주와 30% 이상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이는 상담전문가에게 ‘전문적 자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참여자들의 인식을 반영한다.

- 전문적인 수련과정을 통해 전문적 지식과 충분한 임상 경험을 축적한 사람
- 연구자의 태도로 책임감을 갖고 내담자를 대하는 자

또한, 상담실무자들은 상담전문가가 전문적인 자질뿐 아니라 ‘인간적 자질’을 함께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인간적 자질은 근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에서 출발한다고 보고하였다(8.77%). 이때, 내담자에 대한 돌봄뿐 아니라 상담전문가 스스로에게도 자기 돌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강조되었는데, 꾸준히 자신을 성찰하고 마음을 수련하며 적절한 휴식을 취

www.kci.go.kr

함으로써 상담전문가는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자신의 문제가 내담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7.10%). 또한, 성숙한 인품과 진솔성을 갖추고(6.58%) 꾸준히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6.32%), 타인을 돕고자 하는 마음과 유연한 태도(1.29%) 등이 '인간적 자질' 범주에 포함되었다.

- 전문적인 상담지식뿐 아니라 마음 수련을 통해 인격이 성숙한 사람
- 상담전문가 역시 자기 자신이 어느 스펙트럼에 위치하고 있는지 한계는 무엇인지 자신에 대해 잘 아는 또는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

셋째, 참여자들은 '공인된 자격'을 부여받을 때 전문적, 인간적 자질을 갖추기 위한 상담사들의 노력이 더욱 공고해지며, 상담의 전문성에 대한 대중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하였다. 참여자들은 특정 학과 및 학력, 공신력 있는 학회에 소속되는 것, 특정 자격검정 및 시험 통과 등을 통해 최소한의 전문성을 검증받거나(9.42%), 수련감독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1.94%)을 상담전문가로 정의하였다.

-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전문성을 공신력 있는 학회로부터 검증받은 전문가
- 공신력 있는 학회로부터 상담 및 치료, 자문 및 수퍼비전을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자

마지막으로, 상담실무자들은 상담전문가가 사회적, 윤리적 책임의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윤리적 민감성을 갖추고(7.23%), 한 사람의 인생길을 함께 하는 자로서의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기꺼이 받아들이며(1.68%), 옹호자로서의 의지와 사회적 책무를 소홀히 하지 않는 사람(1.55%)이 상담전문가라고 응답하였다.

- 상담의 목적, 방법, 가치, 위험성 등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그에 대한 윤리적 태도와 책임의식을 가진 사람
- 상담실뿐만 아니라 상담실 밖에서도 내담자가 겪는 고통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권익을 위하는 전문가

역할

'역할' 범주는 실무자들이 상담전문가로서 담당해야 한다고 믿거나 자임하고 있는 역할을 의미하는데, 연구자들은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수행하는 상담사 역할을 의미하는 관여적 상담파트너, 정서적 지원자, 적극적 안내자, 변화의 지렛대, 인지적 이해 증진자와, 상담전문가 집단 내에서의 역할을 의미하는 상담전문성 향상의 주체 등 6개 중위범주와 19개 하위범주로 분류하였다. 상담전문가의 역할에서 관여적 상담파트너 범주(39.35%)는 변화의 지렛대(6.68%), 상담전문성 향상의 주체(5.97%), 인지적 이해 증진자(2.41%) 범주보다 높은 비율로 보고되었고, 정서적 지원자(34.38%) 범주는 인지적 이해 증진자 범주와 30% 이상 차이가 나면서 두 번째로 높은 빈도로 보고되었다. 상담전문가의 역할에 대한 상담실무자들의 인식을 표 3에 제시하였다.

www.kci.go.kr

표 3. 상담전문가의 역할

상위범주	중위범주	하위범주	빈도(명)	비율(%)
역할	관여적 상담파트너	조력하는 사람	242	34.38
		공동협력하는 사람	18	2.56
		양육/보호하는 사람	9	1.28
		자신을 상담도구로 활용하는 사람	8	1.14
		계	277	39.35
	정서적 지원자	내담자와 동행하는 사람	102	14.49
		공감/이해하는 사람	63	8.95
		지지하는 사람	48	6.82
		마음을 치유하는 사람	20	2.84
		소통하는 사람	9	1.28
		계	242	34.38
	적극적 안내자	(길) 안내하는 사람	50	7.10
		옹호하는 사람	18	2.56
		전략/대안을 제공하는 사람	11	1.56
		계	79	11.22
	변화의 지렛대	성찰과 통찰을 촉진하는 사람	35	4.97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사람	9	1.28
		(감정을) 반영하는 사람	3	0.43
		계	47	6.68
	인지적 이해 증진자	조망하는/조망을 넓히는 사람	17	2.41
		계	17	2.41
	상담전문성 향상의 주체	상담사를 교육/지도하는 사람	21	2.98
		전문직으로서 실천/반성하는 사람	12	1.70
		연구하는 사람	9	1.28
		계	42	5.97
	계		704	100

주. 각 범주의 반응 수를 해당 영역의 총반응 수로 나누어 비율을 제시함.

관여적 상담파트너

우선, 상담실무자들은 관여적 상담파트너로서 내담자와 관계를 맺고 상담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상담전문가의 주요 역할 중 하나로

www.kci.go.kr

인식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참여자들은 상담전문가는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주체가 되는 내담자를 조력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다(34.38%). 상담전문가는 다양한 방법으로 조력함으로써 내담자에게 심리적, 관계적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또한, 상담전문가는 내담자와 공동으로 협력하여 상담 성과를 이루어내고자 하며, 내담자가 주체적으로 상담에 참여하도록 내담자에게 책임의식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보고하였다(2.56%). 한편, 응답자들은 상담전문가가 내담자를 보호하거나 양육하는 울타리 역할을 하며(1.28%), 스스로를 상담의 도구로 활용하여 상담사와 내담자 간 치료적, 관계적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점(1.14%)을 강조하였다.

- 상담사 자신이 좋은 도구가 되어 성숙하고 치유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내담자가 뛰어놀게 하는 사람
- 처음 자전거를 타는 사람 뒤에서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도록 잡아주고 보호해주는 사람

정서적 지원자

다음으로, 상담실무자들은 내담자가 건강하고 균형 잡힌 내적 세계와 심리적 안정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정서적 지원'을 상담전문가의 중요한 역할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수의 상담실무자들은 내담자의 주관적 세계에 들어가 내담자가 성장해 나가는 길을 '동행하는 사람'으로 상담전문가의 역할을 보고하였으며(14.49%), 응답자들은 이를 통해 내담자가 혼자라는 외로움과 좌절감을 극복하고 진실된 자아(genuine altered ego)를 만나게 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담자에게 진솔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고 '공감/이해하는 사람'(8.95%), 내담자의 삶과 노력을 '지지하는 사람'(6.82%), 낙담한 내담자가 자신의 기능과 정서적 평안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마음을 치유하는 사람'(2.84%), 서로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누며 상호 '소통하는 사람'(1.28%)으로 상담전문가의 역할을 보고하였다.

- 어려움을 경험하는 내담자에게 보조를 맞추어 위기를 극복하고 자신을 찾아가는 기나긴 길을 동행하는 사람
- 가스활명수처럼 내담자의 마음속 갈등들을 속 시원하게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

적극적 안내자

응답자들은 상담전문가가 때로 길을 잃고 헤매는 내담자를 위해 내담자가 나아가고자 하는 곳으로 인도하거나 다양한 방향 및 방법을 안내해주는 '적극적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상담실무자들은 내담자가 "이리저리 휩쓸리거나" "방향을 잃지 않도록" "원하는 길을 함께 찾아가"거나 "더 나은 방향"을 제공하는 등 '(길)안내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였다(7.10%). 또한 응답자들은 "내담자와 상담자, 그리고 주변의 사회 심리적 환경들을 보호"하면서 "내담자의 권익과 사회정의에 앞장서서" '옹호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 또한 상담전문가의 소임 중 하나라고 보고하였다(2.56%). 상담은 내담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지만, 필요할 경우 상담전문가는 내담자가 미처 생각하거나 시도하지 못한 새로운 '전략/대안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1.56%).

www.kci.go.kr

· 자신의 행복과 삶의 가치를 찾아가는 내담자의 인생의 지도에서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역할

변화의 지렛대

상담실무자들은 상담전문가가 변화의 지렛대로서 내담자의 성장과 변화를 이끌어내는 환경을 제공한다고 보고하였다. 상담실무자들은 상담전문가가 내담자의 '성찰과 통찰을 촉진하는 사람'이며(4.97%),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사람'(1.28%), 그리고 내담자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감정 등을 거울처럼 '반영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0.43%)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 기존에 살아왔던 방식 외에 다른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새로운 경험을 시도해볼 수 있도록 안전기지가 되어주는 사람

인지적 이해 증진자

참여자들은 상담전문가가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을 포함해서 문제 및 상황을 인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상담실무자들은 상담전문가란 내담자가 호소하고 있는 문제와 그 이면에 있는 원인이나 역동 등을 폭넓게 조망하고, 다소 편향되어 있을 수 있는 내담자의 관점을 객관화해주거나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 등 '조망하는/조망을 넓히는 사람'(2.41%)으로 보고하였다.

· 내담자가 매몰된 상황에서 빠져 나와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조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

상담전문성 향상의 주체

참여자들은 상담전문가가 내담자 외에도 상담전문가 집단에 대한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상담전문가로 성장하면서 전문가 집단 내에서 전수받은 교육적 경험과 지혜를 다시 전문가 집단에 환원하고 전승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전문가가 되기 위해 정진하고 있는 상담수련생들을 '교육/지도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2.98%)과 전문가로서의 삶을 자신의 일상 영역에서 '실천/반성하는 사람'(1.70%)으로서 전문가 집단에 좋은 모델이 되는 것을 추구하였다. 또한, 응답자들은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상담 실제에 과학적 기여를 할 것(1.28%)을 강조하였다.

· 오랜 수련을 통해 쌓아온 상담 관련 지식, 기법, 신념 등을 적절히 적용하여 후배들을 상담전문가로 양성하고 지도하며 이끌 수 있는 사람

목표

'목표' 범주는 상담전문가들이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 내담자 및 전문가 집단에 대한 특정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도달하고자 하는 지점을 의미한다. 연구자들은 이를 '내담자의 마음 돌봄', '내담자의 일상 돌봄', '사회 옹호', '내담자 옹호' 등 4개의 중위범주와 11개의 하위범주로 구분하였고, 이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참여자들은 상담전문가가 내담자의 '성장과 변화'(24.56%), '자기이해 및 통찰'(18.30%), '마음건강'(8.52%), '상처치유'(2.26%)와 같은 내담자의 마음 돌봄과, 당면한 '어려움 해결'

www.kci.go.kr

표 4. 목표

상위범주	중위범주	하위범주	빈도(명)	비율(%)
목표	내담자의 마음 돌봄	성장과 변화	98	24.56
		자기이해 및 통찰	73	18.30
		마음건강	34	8.52
		상처치유	9	2.26
		계	214	53.63
	내담자의 일상 돌봄	어려움 해결	64	16.04
		복지증진	30	7.52
		적응력 향상	21	5.26
		방향성 설정	12	3.01
		계	127	31.83
	사회 옹호	사회적 기여 및 사회정의/옹호	33	8.27
		계	33	8.27
	내담자 옹호	잠재력 · 주체성 증진	15	3.76
		임파워먼트	10	2.51
		계	25	6.27
계			399	100

주. 각 범주의 반응 수를 해당 영역의 총반응 수로 나누어 비율을 제시함.

(16.04%), '복지증진'(7.52%), '적응력 향상'(5.26%), '방향성 설정'(3.01%) 등과 같은 내담자의 일상 돌봄을 목표로 하며, 사회적 기여 및 사회정의 옹호(8.27%), '자율성 · 주체성 증진'(3.76%), '임파워먼트'(2.51%)와 같은 내담자 옹호를 위해 노력한다고 응답하였다.

영역 3: 정신건강 인접 분야와 구분되는 상담의 고유성

영역 3은 상담이 다른 정신건강 분야(예, 정신의학, 임상심리, 사회복지 등)와 어떻게 구분되는지에 대한 상담실무자들의 인식을 담고 있는데, 이는 상담의 고유성과 차별성을 내포하고 있다. 상담실무자들은 도구, 인간관, 관심 영역, 역할, 자격 및 자질, 수요자 등 6개의 상위범주와 25개의 하위범주를 통해 상담이 인접 분야와 구별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분석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으며, 범주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도구

정신건강 분야마다 주력으로 활용하는 도구가 다르다는 점이 가장 높은 빈도로 보고되었다(33.10%). 다수의 응답자들은 약물이나 심리진단 도구, 사회적 자원이나 제도 등을 주로

www.kci.go.kr

표 5. 인접 정신건강 분야와 구분되는 상담의 고유성

상위범주	범주	빈도(명)	비율(%)
도구	상담사 자체가 도구로 활용됨	72	10.06
	관계와 상호작용이 중요한 매개가 됨	68	9.50
	언어적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talk therapy)	36	5.03
	공감과 경청을 통해 변화가 일어남	28	3.91
	인간적이고 따뜻한 애정이 바탕이 됨	15	2.09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함	11	1.54
	기타 (비과학적 측면 존재, 종합예술적 특성 등)	7	0.98
	계	237	33.10
인간관	인본적, 전인적 접근	68	9.50
	비판단적, 수용적 관점	53	7.40
	성장과 발달 추구	41	5.73
	긍정적 인간관, 내담자의 잠재력·강점에 대한 믿음	29	4.05
	예방과 교육에 대한 목표의식	17	2.37
	계	208	29.05
관심 영역	심리내적 경험과 역동에 초점	78	10.89
	보다 포괄적인 주제와 대상, 보다 심층적 변화 추구	36	5.03
	계	114	15.92
역할	내담자가 상담의 주체가 되도록 조력함	41	5.73
	상담의 전 과정을 동행함	11	1.54
	신뢰하고 지지함	9	1.26
	잠재력을 촉진함	6	0.84
	기타(양육자, 통합적 역할 등)	6	0.84
	계	73	10.20
자격 및 자질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가장 낮음	14	1.96
	상담에 대한 전문 수련과정을 받음	10	1.40
	교육받는 지식의 방향이 다름	8	1.12
	진단 및 약처방에 대한 권한 유무	5	0.70
	상담자의 인격적 성숙이 중요함	5	0.70
	계	42	5.87
수요자	일반적/적응적 내담자	42	5.87
	계	42	5.87
계		716	100

주. 각 범주의 반응 수를 해당 영역의 총반응 수로 나누어 비율을 제시함.

www.kci.go.kr

활용하는 인접 분야와는 달리, 상담에서는 상담자 자신이 치료적 도구가 되며(10.06%), 상담자와 내담자 간 관계 및 상호작용이 상담과정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상담 성과에 중요한 매개역할을 한다는 점(9.50%)이 상담의 독특성이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물리적, 가시적인 도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통해 내담자들이 재양육 경험 또는 교정적 정서체험을 하게 되는 것은 상담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자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참여자들은 상담이 언어적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이야기 치료(talk therapy)이며(5.03%), 공감과 경청(3.91%), 인간적이고 따뜻한 애정과 수용(2.09%)이 내담자 회복의 발판이 되어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치료 및 적응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가시적, 단기적 효과를 추구하는 타 인접 정신건강 분야와 달리, 상담은 장기적인 시간과 절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1.54%) 역시 상담 분야의 특징이라고 응답하였다. 그 외에도 상담에는 과학, 행동, 체계 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비과학적 측면이 존재하며, 책, 음악, 미술, 영화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종합예술적 특징을 갖고 있다는 응답도 있었다(0.98%).

- 정신의학은 약물을, 임상심리는 심리검사 도구를, 사회복지는 행정적 제도를 주된 도구로 활용하지만, 상담은 상담사 스스로 도구가 된다는 점에서 차별화되기 때문에 상담사의 전문성 확보가 중요함.
- 정신의학과 임상심리는 병리를, 사회복지는 환경을 개선시킨다면, 상담은 '대상'이 아닌 나와 너의 마음과 마음이 만나 인격적 관계를 통해 내담자를 성장시킴.
- 어떤 편견이나 잣대 없이 따뜻한 공감으로 내담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하는 인간적인 사랑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점이 특별함.

인간관

연구 참여자들은 인간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며 어떠한 철학적 방향성을 추구하는지에 따라 인접 분야의 타 전문가들과 다른 상담(전문가)의 고유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하는 다양한 철학적, 과학적 관점이 존재하지만, 상담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인간이 지니는 존재성, 자아성, 가치성 등을 중시하는 인본주의적 인간애와 전인적인 이해의 틀(9.50%)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병리적, 의학적 모델을 바탕으로 진단과 평가에 주로 관심을 두는 정신의학이나 임상 심리 전문가와 달리, 상담전문가들은 비판단적이고 수용적인 관점(7.40%)에서 내담자들을 만나 내담자의 고통이나 증상을 "이상(異常)과 정상(正常)이라는 이분법으로 구분"하거나 "문제"로 이해하지 않고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신호"로 바라보고 있었다. 온전한 인격체로서 내담자의 잠재력이나 강점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었으며(4.05%), 문제 증상에 대한 개입과 해결을 넘어 내담자의 근원적 성장과 발달을 추구하고(5.73%), 예방과 교육에 대한 뚜렷한 목표 의식(2.37%)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상담자 전문성의 기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상담전문가가 내담자를 "고쳐야 할 대상"으로 보고 평가, 판단, 해결책 제시 등을 위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소통하는 파트너"로서 만나며, 내담자뿐 아니라 상담사도 "함께 성장한다"는 점을 상담만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보고

www.kci.go.kr

하였다.

- 상담은 이상과 정상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병리론적 접근이 아니라 내담자를 온전한 인격체로 신뢰하며 그 안에 있는 자기다움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돕는 전인격적 작업임.
- 다른 정신건강 분야는 문제를 평가하고 진단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반면 상담사는 비판단적인 자세로 내담자의 잠재적 가능성을 믿는 것에서 시작함.
- 상담은 병리적 행동의 변화, 증상의 소거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와 평등한 관계 속에서 내담자 스스로를 변화의 중점에 두는 것이 특별함.

관심 영역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인간의 고통을 이해하고, 어려움을 해결해서 심리적 건강을 회복하는 것에 공통적인 관심을 기울이지만, 본 연구에 참여한 상담실무자들은 상담전문가의 주된 관심 영역이 타 정신건강 분야 전문가들과 구분된다고 보고하였다. 예를 들어, 생물학적 증상에 초점을 두는 정신의학과 임상심리, 경제적, 환경적 적응 측면에 관심을 두는 사회복지와 달리 상담전문가들은 심층적인 심리내적 경험과 역동에 보다 초점을 맞춘다고 다수의 참여자들은 보고하였다(10.89%). 일부 참여자들은 최근 상담전문가들도 심리내적인 영역과 사회적 환경적 영역의 상호작용을 간과하지 않고 “내적/외적 어려움을 모두 조력해야 한다는 책임의식”이 확장되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은 심리상담이 정신병리, 이상심리 등에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인 주제를 포괄하며, 개인 및 사회의 정체성과 건강성을 살리는 데 통합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보다 심층적 변화를 추구한다는 점(5.03%)에서 고유성을 갖는다고 응답하였다.

- 관찰이 용이한 생물학적, 사회환경적 지원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가꾸어나가며 스스로 삶의 질을 높여가는지 심리내적 과정에 초점을 둔 개입을 함.
- 이상심리, 환경, 제도 등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종합적 영역이며,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함.

역할

연구에 참여한 상담사들은 상담전문가와 인접 분야 전문가들이 주요 역할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우선, 참여자들은 상담전문가가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인접 분야 전문가들보다 더 두드러진다고 보고하였다(5.73%). 인접 분야의 전문가들은 수요자와의 관계에서 규격화된 기준에 따라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때로는 “일방적인 개입이나 치료를 제공”하지만, 상담전문가는 내담자가 상담과정을 주체적으로 이끌어나가도록 조력하며, 내담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모호함을 견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상담전문가는 내담자를 “수혜의 대상이 아닌 동등한 위치”에 있는 문제해결과 삶의 주체로 인식하기 때문에, 내담자가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과정” 또는 “생애 중 한순간이지만 전 생애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 상담전문가가 인접 분야 전문가와 다른 점이라고 보고하였다(1.54%). 또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치

www.kci.go.kr

료하거나 연계를 하는 인접 분야 전문가들과 달리, 상담전문가는 내담자의 “힘과 의지”를 믿고 “기다림과 버팀목”으로서 지지해주며(1.26%), 내담자의 잠재력을 믿고 촉진해주는 역할(0.84%)이 상대적으로 더 강조된다고 인식하였다.

- 전문가 중심이 아니라 내담자가 주체가 되는 과정이고, 전문가는 그 과정을 함께 하는 역할을 함.
- 정신의학은 약물, 임상심리는 평가, 사회복지는 정책에 기반한 도움을 제공한다면, 상담사는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함.
- 다른 분야보다 상담사는 내담자를 동등한 위치에서 바라보며 내담자의 선택을 지지하고 경청함.

자격 및 자질

연구 참여자들은 상담전문가가 자격 및 자질에 있어서도 인접 분야 전문가와 차이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상담전문가의 경우 상담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체계적인 수련과정을 거쳤다는 점에서 말 그대로 상담에 특화된 전문가라고 응답하였다(1.40%). 또한 심리학적 지식과 이론적 지향을 지닌다는 점에서 정신의학 및 사회복지와 구분되며, 심리평가에 대한 지식과 “내원 환자 치료”에 기반을 둔 임상교육 환경 등에서 임상심리와도 교육받는 지식의 방향이 다를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1.12%). 진단 및 약물 처방에 대한 권한 유무로 상담전문가와 정신의학 및 임상심리 전문가와의 차이를 구분하기도 하였으며(0.70%), 상담전문가는 인접 분야 전문가에 비해 인격적 성숙이 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하였다(0.70%). 한편, 상담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타 분야에 비해 가장 낮다는 점을 지적한 응답자들도 있었다(1.96%).

- 전문적인 상담기법과 지식, 긍정적인 관계 경험 제공, 자기 이해 및 타인과의 상호작용 능력 개선 방법 등 전문적인 상담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들의 서비스라는 점에서 다름.
- 상담사는 수퍼비전 및 자기 분석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인품을 갖춰야 하는 점에서 차별적임.

수요자

상담의 수요자와 인접 정신건강 분야의 수요자 간 차이에서 상담의 고유성을 찾는 응답자들도 있었다. 정신의학이나 임상심리 전문가들은 주로 정신 병리적인 어려움을 지닌 대상을, 사회복지사는 주로 환경 및 자원적인 어려움을 가진 대상을 개입하지만, 상담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일상의 삶을 기능적으로 살아가는 적응적인 일반인’들과 함께 작업할 가능성이 높아 수요자의 증상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고 인식하였다(5.87%). 일부 응답자들은 상담이 “정신건강 분야 중 대상군이 가장 넓은 분야”라고 반응하였다. 한 응답자는 “정신의학은 부상의 진단과 약물 처방, 임상심리는 부상자를 대상으로 한 재활치료, 상담은 바른 자세와 튼튼한 체력을 만들기 위한 운동, 사회복지는 건강을 유지하도록 돕는 영양제”로 비유하기도 하였다.

- 비임상이나 비환자군으로 비교적 적응적

www.kci.go.kr

인 일상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상담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에게 전문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음.

· 다양한 강도와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건강한 성장 욕구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조력함.

한편, 상담이 인접 정신건강 분야와 구분되는 고유성을 충분히 지니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실제적으로 구분되지 않고 있어서 사회적 인식 및 직무 구분 등에 있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응답한 참여자들이 있었다(n = 17). 또한 상담전문가와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특별히 구분되지 않으며 이들이 함께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참여자들도 있었다(n = 19).

상담실무자들이 보고한 상담 및 상담전문가에 대한 정의를 종합하여 그림 3에 제시하였다. 요약하면, 상담실무자들은 '상담전문가의 조건 및 역할', '상담의 과정', '상담의 성과'를 통해 상담 및 상담전문가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즉, 상담이란 전문적, 인간적 자질과 공인된 자격, 그리고 사회 윤리적 책임의식을 지닌 상담전문가와 내담자의 치료적 관계를 중심으로 정서적 지원, 적극적 안내, 변화의 지렛대, 인지적 이해 증진 등 상담전문가의 전문적 조력 활동을 통해 내담자가 자신의 자아를 확장함으로써 당면과제를 해결하고, 근원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상담 경험이 있는 일반인들이 인식하는 상담과 상담전문가

연구자들은 상담서비스 이용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된 상담 및 상담전문가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상담 경험이 있는 일반인들은 상담과정에서 상담전문가가 한 행위와 그 효과를 지켜보면서 상담 및 상담전문가의 핵심적인 부분을 인식하는 것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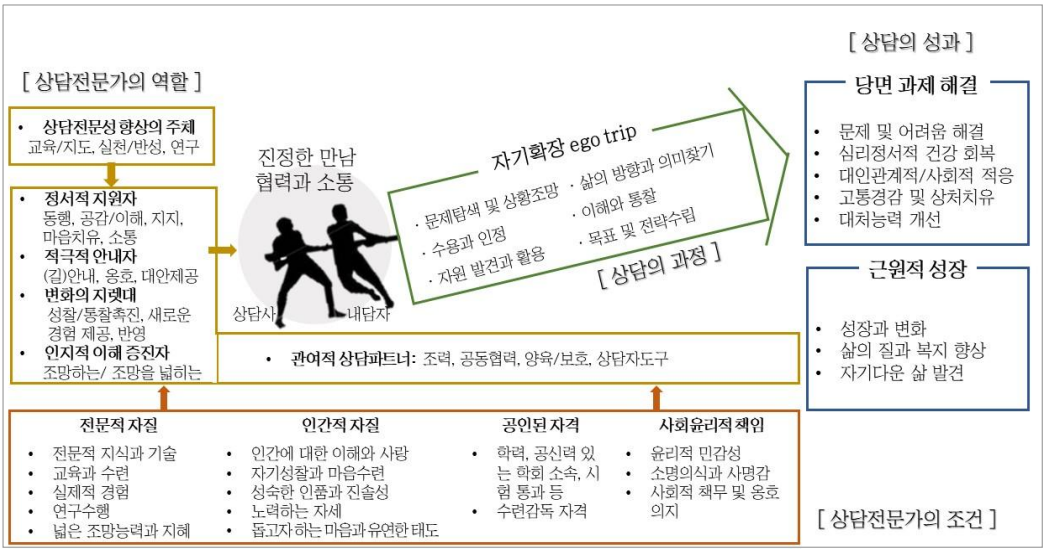

그림 3. 상담 및 상담전문가의 정의

www.kci.go.kr

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이를 '상담전문가의 역할'과 '상담의 효과' 2개 영역, 9개의 상위범주, 34개의 하위범주로 분류하였다. 영역별로 결과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영역 1: 상담 유경험자들이 인식한 상담전문가의 역할

상담 유경험자들은 상담전문가가 정서적으로 자신을 지지해주고, 명시적으로 방법을 안내하거나 인지적인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돕고, 촉진적인 대화를 이끌어 주었던 모습을 긍정적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연구자들은 이를 내담자가 인식한 상담전문가의 '역할'로 분류하였다. 앞서 설명한 상담실무자들이 인식한 상담전문가의 역할과 비교하면, '정서적 지원', '적극적 안내', '인지적 이해 증진', '촉진적 대화' 등 4개의 상위범주는 유사한 반면, 상담실무자들이 보고한 '관여적 상담파트너'과 '상담전문성 향상의 주체' 범주는 일반인들 사이에서 보고되지 않았다. 상담실무자와 상담수요자들의 인식을 비교할 수 있도록 상담전문가의 역할에 대한 두 주체의 관점을 표 6에 함께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결과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삶의 위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담자를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도움을 제공하는 '정서적 지원'은 상담전문가의 역할 중에서도 가장 의미 있고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보고되었다(36.59%). 정서적 지원의 하위범주는 상담실무자들이 보고한 내용과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경청'(18.90%), '공감과 이해'(7.52%), '적극적 지지'(5.08%), '온화한 태도'(4.27%), '함께해 줌'(0.81%)의 순으로 내담자에게 도움이 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 어린 시절부터 지속된 (...)로 인한 상처에 모두들 (...)를 이해하라고 하거나 어쩔 수 없는거지.. 라는 무책임한 말들로 더 상처를 받아 더이상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게 되었을 무렵 (...) 상담사 선생님께서 마음 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게 해주셨다. 나는 그동안의 일을 털어놓으면서 목놓아 울었고, 듣고 계시던 선생님도 가슴 아파하면서 자식처럼 보듬어 주시고 함께 울어주셨다. 그 진심 어린 공감이, 그 위로가 내 영혼을 어루만져 주는 느낌이었다. 세상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온전히 이해받았다는 느낌이었다. (내담자 324)

둘째, 참여자들은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해주는 것뿐 아니라 실질적, 지시적, 가시적인 도움방안을 제공해주는 것 또한 상담전문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었다. '적극적 안내'에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공'(18.70%)하거나 '방향성 제시'(4.67%), 내담자의 일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참여적 동행'(3.25%), 특정 선택과 '결정을 이끔'(1.22%), 그리고 '과제 및 연습 제공'(0.81%)하는 등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 상담 세 번째부터는 숙제를 내주었다. 힘들 때마다 살고 싶다고 애기하게 하는 등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줬다. 그대로 하려고 노력했더니 도움이 되었다. (내담자 328)
-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같이 마인드맵을 적어보고, 관련 학원을 같이 찾아주고, 구체적인 성취루트와 체크리스트를 같이 작성해서 확인해주고, 부모님을 어떻게 설득할지 같이 연습해주셨다. (내담

www.kci.go.kr

표 6. 상담실무자와 상담수요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상담전문가의 역할 비교

상담실무자의 관점					내담자의 관점		
비율	빈도	하위범주	상위범주		하위범주	빈도	비율
1.28	9	소통하는 사람	정서적 지원자	정서적 지원	경청	93	18.90
8.95	63	공감/이해하는 사람			공감과 이해	37	7.52
6.82	48	지지하는 사람			적극적 지지	25	5.08
2.84	20	마음을 치유하는 사람			온화한 태도	21	4.27
14.49	102	내담자와 동행하는 사람			함께해 줌	4	0.81
34.38	242	계			계	180	36.59
1.56	11	전략/대안을 제공하는 사람	적극적 안내자	적극적 안내	해결책 제공	92	18.70
7.10	50	(길) 안내하는 사람			방향성 제시	23	4.67
2.56	18	옹호하는 사람			참여적 동행	16	3.25
					결정을 이끔	6	1.22
					과제 및 연습 제공	4	0.81
11.22	79	계			계	141	28.66
			인지적 이해 증진자	인지적 이해 증진	자료 분석	68	13.82
2.41	17	조망하는/넓히는 사람			객관적 조망	42	8.54
					인식의 확장	13	2.64
2.41	17	계			계	135	27.44
4.97	35	성찰과 통찰을 촉진하는 사람	변화의 지렛대	촉진적 대화	지속적 질문	17	3.46
0.43	3	(감정을) 반영하는 사람			감정 반영	11	2.24
1.28	9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사람			잠재력 발견	8	1.63
6.51	47	계			계	36	7.32
34.38	242	조력하는 사람					
2.56	18	공동협력하는 사람	관여적 상담 파트너				
1.28	9	양육/보호하는 사람					
1.14	8	상담자를 도구로 활용함					
39.35	295	계					
2.98	21	교육/지도하는 사람	상담 전문성 향상의 주체				
1.70	12	실천/반성하는 사람					
1.28	9	연구하는 사람					
5.97	42	계					

주. 각 범주의 반응 수를 해당 영역의 총반응 수로 나누어 비율을 제시함.

www.kci.go.kr

자 227)

셋째, 상담실무자들에게 '인지적 이해 증진'은 가장 낮은 빈도와 단 하나의 하위범주로 보고된 것에 비해, 상담 경험이 있는 일반인들은 이를 상대적으로 더욱 의미 있는 상담사의 역할로 인식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심리검사 등 객관적인 '자료 분석'(13.82%)을 통해 자기 자신을 이해하게 된 것, 자신과 타인, 또는 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객관적 조망'(8.54%), 몰랐던 부분을 새롭게 설명해주거나 예시를 들어 '인식의 확장'(2.64%)을 도와주는 것 등을 상담전문가의 역할로 보고하였다. 이때, '자료 분석' 범주는 상담실무자들에게는 언급되지 않고 일반인들에게서만 도출된 범주로, 일반인들이 응답한 하위범주 중에서 '경청'(93명), '해결책 제공'(92명)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빈도를 차지했다.

- 설문지를 작성하고 나온 결과를 토대로 현재 나의 상태나 성향, 무의식적 행동 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설명해준 것이 도움이 되었다. (내담자 193)
- 내 안에 꼬여있던 여러 문제들을 조금 더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볼 수 있게 도와주고, 그중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해결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 등으로 나누어 설명해주셨다. (내담자 103)

넷째, 참여자들은 상담전문가에 대해 '지속적 질문'(3.46%)을 통해 새로운 통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내담자가 몰랐던 혹은 회피해 왔던 '감정 반영'(2.24%)과 자신의 '잠재력 발견'(1.63%) 등을 위한 '촉진적 대화'를 해주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실무자들에게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범주가 도출되었는데, 일반인들은 촉진적 대화를 통해 자신을 탐색하고 통찰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상담사의 역할을 강조한 반면, 상담실무자들은 내담자에게 새로운 관계 경험을 제공하거나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특정 행동을 시도해볼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변화를 촉진한다는 의미가 강조되었다.

- 계속 질문을 하면서 나 자신의 진짜 감정과 욕구를 파악하도록 유도해주었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나 자신의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었다. (내담자 102)
- 상담사는 제가 고민하거나 잘 모르겠는 복잡한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 (내담자 325)

영역 2: 상담 유경험자들이 경험한 상담의 효과

상담 유경험자들은 상담을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이해가 증진 또는 전환되며, 긍정성이 강화되거나 문제가 해결되고, 행동의 변화가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연구자들은 이를 '내담자가 경험한 상담의 효과' 영역으로 명명하였고, 5개의 상위범주와 18개의 하위범주로 구분하였다. 일반인들이 경험한 상담 효과는 표 7에 제시하였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정서적 안정

상담에서 일반인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었던

www.kci.go.kr

표 7. 내담자가 경험한 상담의 효과

상위범주	하위범주	빈도(명)	비율(%)
정서적 안정	마음이 편안해짐	62	21.45
	후련하고 시원해짐	22	7.61
	위로와 위안을 받음	11	3.81
	스트레스가 완화/해소됨	10	3.46
	내 편이 생겼다고 느낌	5	1.73
	계	110	38.06
이해 증진 및 전환	자기를 돌아보고 이해하게 됨	46	15.92
	객관적 상황이나 몰랐던 부분들을 이해하게 됨	19	6.57
	타인을 이해하게 됨	15	5.19
	계	80	27.68
긍정성 향상	자아존중감과 자신감이 회복됨	17	5.88
	긍정적 태도를 갖게 됨	14	4.84
	삶의 방향을 찾게 됨	6	2.08
	기분이 전환되거나 흥미가 유발됨	5	1.73
	계	42	14.53
문제 해결	문제가 해결/개선되었거나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됨	13	4.50
	실제 관계가 회복됨	12	4.15
	고통스럽던 증상이 완화됨	9	3.11
	대처방법이 구체적이고 명료해짐	8	2.77
	계	42	14.53
행동 변화	선택 및 결정을 할 수 있게 됨	10	3.46
	스스로 생각/표현을 할 수 있게 됨	5	1.73
	계	15	5.19
계		289	100

주. 각 범주의 반응 수를 해당 영역의 총반응 수로 나누어 비율을 제시함.

것은 '정서적 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38.06%). 응답자들은 상담을 통해 불안하거나 혼란스럽던 마음이 편안해지고(21.45%), 이야기를 쏟아낸 후 자신을 억누르고 있던 정서적 무게가 어느 정도 덜어지면서 후련하고 마음이 시원해진 경험(7.61%)을 긍정적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또한, 상담전문가로부터 따뜻한 위로를 받아 위안이 되었거나(3.81%) 자신을 믿고 지지

www.kci.go.kr

해주는 온전한 “내 편”이 생겼다고 느꼈던 경험(1.73%)을 통해 힘을 얻을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마지막으로, 극심한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고 느낄 때(3.46%) 상담이 효과적이었다고 인식하였다.

- 상담을 받고 나면 속이 시원해지고 극심했던 긴장감이 사라지는 경험을 했다. (내담자 316)
- 누군가 시간을 할애해서 내 이야기를 이렇게 진지하게 들어주는 것을 보면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었고 심리적으로 위안을 받았다. (내담자 24)

이해 증진 및 전환

상담 경험이 있는 일반인들은 자신, 타인, 세상에 대한 이해가 확장되고 기존에 지니고 있던 인식에 전환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해 증진 및 전환’을 상담의 주요 효과로 보고하였다(27.68%). 상담전문가의 객관적이고 통합적인 조망을 통해 내담자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15.92%), 그동안 놓치고 있던, 또는 모르고 있던 부분들을 이해하게 되거나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을 때(6.57%)를 의미 있는 경험으로 기억하였다. 또한, 상담을 통해 주요 타인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게 되었을 때(5.19%) 인식의 확장 및 전환이 일어날 수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들을 듣고 시간을 두고 차분히 생각해보게 되면서 나 자신과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고, 상황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내담자 281)
- 그동안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을 실제로 적용해볼 수 있었던 점이 도움이 되었다. (내담자 185)

긍정성 향상

상담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은 자신과 타인에 대해 부정적으로 가라앉아 있거나 닫혀 있던 마음이 서서히 열리고, 현재의 무망한 상황이 조금씩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 믿게 되면서 긍정성이 향상되는 경험을 상담의 의미 있는 효과로 보고하였다(14.53%). 일반인들은 상담을 통해 자기 자신을 수용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고(5.88%), 삶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면서(4.84%)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일부 응답자들은 삶의 방향을 찾게 되었거나(2.08%) 기분이 전환된 점, 그리고 흥미와 호기심을 느끼게 되었다는 점(1.73%)을 상담의 효과로 보고하였다.

- 내성적이고 위축되어 있었는데 희망을 잃지 않도록 격려해주고 부족한 점도 보듬어 준다고 느껴져 자신감도 생기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었다. (내담자 300)
- 심리적, 육체적으로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눈물이 많아지고 어떤 일이든 하기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상담하면서 이만큼 잘 해온 것에 대해 자존감이 생기기 시작하고 일을 할 때에도 더 적극적인 태도로 임할 수 있게 되었다. (내담자 267)

문제 해결

일반인들은 당면한 어려움과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을 때 상담이 효과적이었다고 인식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조금이라도 개선되거나 개선을 위한 노력을 시작

www.kci.go.kr

하게 되었다는 점(4.50%) 또한 상담의 의미 있는 효과라고 응답하였다. 실제로 힘들었던 관계가 회복되거나(4.15%) 고통스럽던 증상이 완화되었을 때(3.11%), 막연하고 막막하던 문제 앞에서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명료해진 대처 방법을 알게 되었을 때(2.77%) 긍정적인 경험이었다고 답변하였다.

- 이해할 수 없었던 아이와 아이 친구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려주신 방법대로 하다 보니 트러블이 줄어들고 관계가 좋아졌다. (내담자 226)
- 생활할 때 우울하고 악몽을 꾸고 귀신을 보고 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그것이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게 되고 실제로 그런 증상이 없어졌다. (내담자 328)

행동 변화

응답자들은 일상에서 자신의 행동이 실제로 변화되었을 때 상담이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전과 달리 인생의 중요한 선택이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거나(3.46%) 스스로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게 되었을 때(1.73%), 자신이 성장했다고 느끼고 상담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었다고 인식하였다.

- 고민만 하느라 머리만 아프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용기를 주고 내 스스로 행동할 수 있게끔 이끌어 내 주셨다. (내담자 326)
- 상대방을 변화시키기 보다는 그 존재를 인정하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먼저 챙기라는 조언이 마음에 정말 와 닿았다. (...) 를 볼 때마다 그 말이 떠올랐고, 나라는 존재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 스스로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상대방에게도 조금 더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내담자 180)

논 의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들의 전문직 정체성은 곧 학회 정체성의 근간이자 국내 상담전문가 집단이 공유하고 있는 핵심적인 가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자신의 전문 직업에 대한 학회원들의 정체성을 탐색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담 실무자인 학회원들이 상담 및 상담전문가를 어떻게 정의하고 개념화하는지, 인접 분야와는 어떻게 다르다고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그들이 경험적으로 인식하는 상담 전문직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상담수요자들이 상담 및 상담전문가의 역할과 성과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탐색하기 위해 상담 경험이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해석하고, 이론 및 상담 실제, 그리고 학회 발전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논하면 다음과 같다.

상담의 성과 및 과정

우선, 본 연구에 참여한 상담실무자들은 상담이란, 일정한 조건(전문적・인간적 자질, 공인된 자격, 사회・윤리적 책임의식)을 갖춘 상담전문가가 특정 역할(정서적 지원, 적극적 안내, 인지적 이해 증진, 변화의 지렛대, 관여적 상담파트너로서의 역할 등)을 수행함으로써

www.kci.go.kr

내담자와 상담자 간 치료적 ·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고, 내담자를 적극적으로 조력하여(함께 하기, 복돋아 주기, 이끌어 주기) 내담자의 회복과 성장을 달성해가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즉, 상담실무자들은 상담의 성과, 상담의 과정 및 기제, 상담전문가의 조건과 역할 등을 통해 상담 및 상담전문가에 대한 정의를 내렸는데, 이는 선행연구 및 전통적인 상담의 개념과 일치한다. 구체적으로, 다수의 참여자들은 상담자와 내담자 간 관계 맥락을 통해 상담의 치유적 기제가 내담자에게 전이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내담자의 심리적 힘이 회복되면서 두 주체가 공유한 목표를 향해 새로운 시도를 해나갈 수 있는 협력적 과정이 곧 상담임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상담사와 내담자 간 협력적 상호작용을 강조한 선행연구(김창대, 권경인, 한영주, 손난희, 2008; 장성숙, 2002; 이장호, 1982)와 일맥상통하며, 두 주체의 관계를 중요하게 보고한 미국 상담실무자들의 인식과도 유사하다(Kaplan et al., 2014; Wampold & Budge, 2012). 한편, 치료적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지만, 구체적인 관계 양상에서는 차이를 엿볼 수 있었다. 앞서 기술한 미국상담학회의 정의에서는 두 주체 간 '교육적(educational)', '목적적(purposeful)' 관계를 중시한 것과 달리, 국내 상담실무자들은 '협력적', '소통하는', '파트너적인' 관계를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상담실무자들의 응답에서 네 번째로 높은 빈도로 등장한 단어가 '함께'였는데, 응답자들은 상담전문가로서 '내담자의 삶을 함께하는 동반자'로서의 자세, 내담자를 성장시키는 '양육자,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중시하였다. 이는 한국의 상담사들이 스스로에게 부모 혹은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관여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김창대 등 2008; 이은경 등, 2007; 장성숙, 2002)와 맥을 같이 한다. 서구의 상담사들이 전문적 지원을 받을 개별적 존재로서 내담자를 인식하고 목적 지향적인 관계를 설정한다면, 국내 상담사들은 내담자의 성장 과정을 '함께'하고 '관여'하는 존재로 상담전문가를 인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상담의 성과 범주에서도 나타났다. 미국상담학회의 정의에서는 '교육', '학업 및 진로' 등 세분화된 영역으로 상담의 목표가 제시되었는데, 우리나라 상담실무자들은 '문제 및 어려움 해결', '사회적, 심리적 적응', '대처능력 개선', '자기다운 삶 살기' 등을 상담의 목표로 인식하고 있었다. 즉, 보다 구체적이고 초점화된 세부 영역의 상담 성과를 기대하는 서구 상담사들과 달리, 국내 상담실무자들은 '근원적 성장'이라는 상담 성과를 강조하면서 내담자들의 삶의 전반에 영향력 있는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사실은, 상담의 효과에 대한 일반인들의 응답에서는 '성장'이라는 단어가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삶의 방향을 찾게 되었다' 등과 같이 성장을 내포하는 응답이 존재하기는 했지만, 다수의 일반인 응답자들은 현재 당면한 혼란스러운 감정이 안정되는 것,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알게 되거나 행동이 변화되는 것 등을 통해 상담의 효과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다수의 일반인 참여자들은 상담전문가가 분명하고 지시적으로 삶의 방향이나 방법들을 안내해주고, 명확하고 현실에 맞게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인지적인 이해를 증진시켜 주었을 때 긍정적인 경험을 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상담전문가를 '공감'해 주는 사람으로

www.kci.go.kr

인식하는 참여자가 가장 많았지만, 상담사를 '해결책을 제공'해 주는 사람으로 인식한 참여자들 또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경 등(2007)의 연구에서 상담전문가들은 한국의 내담자들이 상담사에게 지시적이거나 문제중심적인 접근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는데, 본 연구에 참여한 일반인들의 응답을 통해 이러한 성향이 재차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상담전문가의 역할과 조건

연구에 참여한 상담실무자들은 전문적 지식과 기술, 교육과 수련, 임상경험과 연구수행 등 상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가 상담전문가들의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인식하였다. 또한, 자신의 삶과 행동에 대해 끊임없이 성찰하고, 내담자를 자신과 동등한 한 사람으로서 존중하고 사랑하며 진솔하게 다가갈 때 상담사들의 진정한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상담은 전문적 자기 영역과 개인적 자기 영역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으며,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상담사들의 노력은 오랜 시간 상담의 고유한 특징으로 간주되어 왔다(유성경, 2005). 상담전문가들의 자기성찰 및 자기반성의 중요성을 확인한 본 연구의 결과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도 상담전문가로서의 가치와 태도가 전승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이 외에도 상담실무자들은 학위나 공신력 있는 학회 소속, 수련감독 자격과 같은 공인된 자격뿐 아니라 윤리적 민감성, 소명의식과 사명감, 사회적 책무와 옹호 의지 등과 같은 사회·윤리적 책임의식을 전문가로서 갖춰야 할 조건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후배 수련생들을 교육하고 지도하여 깊이 있는 상담전문가로 양성하고,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상담의 근거기반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전문가 집단의 일원으로서 전문적 역량을 유지 및 향상하기 위해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환원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전문직 정체성 연구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Hall(1968)에 따르면, 전문직 정체성은 행동의 주요 준거로서 전문조직(예, 학회)의 활용, 공공서비스에 대한 신념, 자기 규제에 대한 신념, 자기 분야에 대한 소명의식, 자율성에 대한 신념으로 구성된다. 또한, 전문직은 공인된 자격제도와 철저한 훈련과정 등과 같은 관리규정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공공선을 추구하고 전문적 윤리 기준을 위배하지 않을 책임성이 요구된다(Brodsky & Galloway, 2003). 이러한 주장에 비추어 볼 때,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들은 전문직 정체성을 형성하는 다양한 요소들과 관점을 이미 확고하게 구비하고 있으며, 상담 현장에서 전문적 역할들을 폭넓게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무분별하게 양산되는 상담 관련 자격들로 인해 상담사 간 교육훈련과 전문성의 격차가 크고, 이로 인해 내담자에게 제공되는 상담의 양상 및 질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상담서비스의 소비자인 대중들에게 적지 않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데(곽미용, 이영순, 2010), 전문적 성장과 개인적 성찰을 추구하면서, 상담직 전체의 발전과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는 상담심리사들의 노력이 상담전문가의 전문직 정체성의 근간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인들은 내담자의 일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상담사의 '참여적 동행'을 상담사의 주요 역할로 인식했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앞서 기술한 대로 상담실무자들은

www.kci.go.kr

내담자에 대한 양육자로서의 태도와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내담자의 사적 세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개입하는 것을 꺼리는 성향도 함께 존재해 왔다(김창대 등, 2008). 그러나 본 연구에 참여한 내담자들은 자신의 상담 경험에 근거해 상담사가 일상의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점검해주거나 설계하고, '같이 학원을 알아봐 주며', 중재자를 '소개'해 주거나 주요 이해관계자를 직접 '만나보는' 등 지시적이고 직접적인 개입 활동을 상담전문가의 효과적인 역할로 보고하였다. 전통적인 상담에서는 상담 장면 이외의 관계에 대해 상담사가 민감하게 반응할 것을 요구하거나 사회적, 환경적 개입을 상담사의 직무나 역할로 간주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청소년 동반자나 진로 및 직업상담사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한다고 보고되었다(박한샘, 고은영, 2009; 윤아랑, 정남운, 2011; 이소연, 서영석, 김재훈, 2018). 그러나 실제 상담 현장에서 지식이나 지혜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방안을 안내하며 중재하는 등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상담사의 개입은 내담자들에게 익숙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는 상당수의 상담실무자들이 실제 현장에서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같은 맥락에서, 국내 상담실무자들이 추구하는 상담전문가의 목표로 '사회 옹호'와 '내담자 옹호' 범주가 도출되었다는 점도 흥미롭다. 상담실무자들은 내담자가 성취해야 하는 혹은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의 단계에 따라 '당면문제 해결'과 '근원적 성장'을 상담의 성과로 정의하였다면, 상담전문가를 정의할 때에는 상담사가 내담자의 어떠한 측면에 기여하는 지에 초점을 맞춰 사회적 기여, 사회정의/옹호로서의 역할을 떠올리는 응답자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미 상담사의 주요 역량과 직무에 사회정의 및 옹호 역량이 포함되고 그에 기초한 교육모델이나 교육과정이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는 미국과 비교하면(이소연 등, 2018; Goodman, Liang, Helms, Latta, Sparks, & Weintraub, 2004; Lewis, 2010; Ratts, Singh, Nassar-McMillan, Butler, & McCullough, 2016)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강도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국내 상담실무자들에게도 옹호 역량에 대한 요구 및 지향에 대한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옹호 역량에 대한 교육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상담실무자들은 현장에서 새로운 역할과 요구를 인식하고, 자발적 수련과 수행 등을 통해 자생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인접 분야와의 구분

정체성은 동시에 작용하는 서로 다른 두 벡터, 즉 유사성과 연속성의 벡터와 차이와 파열의 벡터로 구성된다(김정현, 2010; Hall, 1968). 상담과 정신건강 인접 분야 간에 존재하는 유사점과 차이점을 확인하는 작업은 상담 직업이 전문직 정체성을 확립하고, 법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도 매우 절실하다(Bronstein, 2003; Weinrach et al., 2001). 본 연구 결과, 인접 분야 간 구분이 되지 않는다거나 구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 참여자의 4%를 넘는 등 구분의 모호성과 정체성의 혼란이 드러나기도 했으나, 다수의 참여자들은 인간관, 도구, 관심 영역, 역할, 자격 및 자질, 수요자 등의 측면에서 인접 분야와는 다른 상담의 고유성이 존재한다고

www.kci.go.kr

응답하였다. 우선, 가장 많은 응답자들은 인간이 지닌 방대한 자원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를 기반으로 인본주의적이고 성장과 예방을 추구하는 상담의 기본 철학을 강조하였다. 또한 상담이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극적 치료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제한된 상태'(Corey & Corey, 2020)인 일반인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상담의 독특성으로 꼽았다. 이는 병리학적 의료모델이 아닌 웰니스(wellness) 모델을 강조한 Mellin 등(2011)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다수의 상담실무자들은 내담자를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충분히 기능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상담의 주체자로서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들의 강점과 자원을 발견하여 지지하는 것이 상담의 필수적 목표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철학적 관점은 병리학적 의료모델에 중점을 둔 기존 심리학의 뿌리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듯(Myers, 1992), 인접 분야와는 다른 상담만의 차별성을 형성하는 근간이 된다.

둘째, 또 다른 상담의 고유성은 상담전문가, 관계와 상호작용, 언어적 대화, 공감과 경청 등이 주요 도구가 되어 변화를 이끌어내는 매개체가 된다는 점이다. 상담전문가가 어떠한 철학을 바탕으로 어떠한 자질과 태도, 이론과 개입 등을 가지는지가 곧 치료적 도구가 된다는 사실은 앞서 기술한 상담 및 상담전문가에 대한 정의와 유사하며, 이는 상담의 특성에 대한 상담실무자들의 일관된 관점을 보여준다. 미국의 상담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인접 분야 간 차이점을 확인한 Meillin 등(2011)의 결과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는 상담사 자신이며, 상담의 성과에서 상담사 역할이 지니는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Corey & Corey, 2020). 전문적 자아와 개인적 자아의 통합에 기반한 성찰적 과정이 상담사들에게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갖는 일이며, 상담은 정형화된 공식이나 일반적인 기법보다 상담사와 관계적 특성 등에 따라 역동적이고 복합적으로 구성 및 재구성된다(Mahoney & Craine, 1991)는 점은 인접 분야와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상담실무자들은 상담이 인접 분야보다 심리내적 경험과 역동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을 보고하였다. 이는 사회복지사들이 내담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체계적인 문제에 더 중점을 두는 반면 상담은 개인에 중점을 둔다고 보고한 Mellin 등(2011)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Mellin 등(2011)은 사회정의 상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거시적인 관점을 지향하는 사회복지사들과는 달리, 개인과 심리내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두고 상담사의 역할과 역량을 논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반면, 국내 상담실무자들은 상담전문가들이 개인의 심리 정서적 세계를 깊이 다룰 수 있는 전문적 기술과 능력이 특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의사소통 기술, 조직에서의 적응력 향상 등은 물론이고 삶의 실존적 측면까지 다룬다는 점에서 인접 분야 전문가 중에서 가장 다양하고 포괄적이며 통합적인 주제를 포괄하고 보다 심층적인 변화를 추구한다고 보았다. 즉, 상담전문가들은 미시적인 관점 외에도 거시적이고 사회 참여적인 관점도 함께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진로진학상담사에게 제도 이해 및 활용 역량, 자원연계 역량, 다문화·사회정의 옹호 역량 등이 요구된다고 제안한 임은미 등(2018)의 연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상담전문가의 역량이 점차 확장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상담실무자들은 상담 정체성의 변화를 수용하고 이를 확대해나가고 있는 것

www.kci.go.kr

으로 보인다.

연구 결과의 시사점

"상담은 무엇이며, 상담전문가와 상담수요자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라는 질문은 상담사로서 책임 있게 답할 수 있어야 하는 핵심적이고 근원적인 질문이다. Gale과 Austin (2003)은 상담 분야가 전문직으로서 정체성을 개발해 나가는 것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교육 및 교육프로그램 간 차이, 광범위한 전문분야 및 자격증의 일관성 부족, 전문 상담심리사들을 대표하는 전문조직 간 일관성과 협력 부족 등을 제시하였다. 한국상담심리학회는 상담심리사 자격 및 훈련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상담 전문조직으로서, 상담 및 상담심리사들의 정체성 개발을 돕고 전문직으로서의 집단적 정체성을 공고히 할 책임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시점을 살아가고 있는 상담실무자들이 정의하는 상담 및 상담전문가에 대한 상담수요자의 인식을 통합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전통적인 상담, 그리고 서구의 상담 개념과 비교하였으며, 인접 분야와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상담 및 상담전문가의 정체성의 현주소를 이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학회가 학회원들의 실상(實像)과 유리되지 않고, 그들의 목소리와 요구를 실제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상담실무자들과 일반인들은 전문적 조건을 갖춘 상담사들의 조력과 협력 활동을 통해 내담자의 정서, 인지, 행동 등의 주관적 세계가 변화하여 결국 회복과 성장에 이르게 하는 것이 상담이라는 점을 공통적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국내 상담실무자들 사이에 전문가로서의 공통된 구조와 인식이 존재하고, 상담을 경험한 일반인들 또한 유사한 인식의 틀을 공유하고 있으며, 그것이 곧 상담(사)의 정체성을 의미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이는 국내에 상담이 소개된 지 반세기가 지나는 동안 상담전문가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상담 및 상담전문가의 정체성을 형성해 왔으며, 그에 대해 상담수요자들이 상당 부분 동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상담실무자들이 강조한 근원적이고 전인적인 성장과 예방, 내담자의 잠재력과 주체성, 내담자와의 관계 경험 및 협력 활동, 전문성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지속적 노력 등은 상담(사)의 전문직 정체성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들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일반인 참여자들에게서는 뚜렷하게 발견되지 않았다. 여전히 일반인들에게는 상담의 전문적 특성들이 충분히 인식되지 못하는 부분 또한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잠재적 내담자 및 상담수요자들에게 상담(사)이 지닌 전문성과 그 요소들을 알리고 소통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상담은 내담자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력할 뿐 아니라 내담자의 강점과 자원을 조명하면서 내담자의 성장과 발달을 지향하고 문제 예방을 도모하는 주도적인 서비스라는 점을 대중들에게 인식시킬 때, 상담에 대한 낙인이 줄고 전문적 도움추구 행동이 늘어나면서 상담서비스의 범위와 기회가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상담사의 전문적 · 인간적 자질, 사회 · 윤리적 책임의식, 내담자에 대한 태도 등이 상담사의 전문성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라는 사실은 국내외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보고되었지만(김창대 등, 2008; 이은경 등 2007),

www.kci.go.kr

이러한 논의들이 전문직 정체성이라는 공통분모로 수렴되지는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상담 및 상담전문가의 고유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경험적으로 살펴보고, 전문가로서 수행해야 할 상담의 범위와 목표, 역할 등을 확인함으로써 상담 전문직 정체성에 대한 타당성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국내 상담 분야에서는 비전문적, 비윤리적 상담이 범람하고, 다양한 분야 및 영역에서 심리상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상담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이전의 전통적인 업무와는 다른 일들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상담전문가들은 정체성의 혼란과 불안을 경험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상담 및 상담전문가의 고유한 본질 요소들은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는 개인 상담사들에게 전문성에 대한 준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특히 초심상담자들은 이러한 준거를 활용하여 상담이라는 전문 영역에 보다 적절하게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유현실, 김창대, 2011; Goodyear et al., 2008). 더 나아가 학회의 전문자격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성 기준을 점검하거나 상담사 교육과정 개발, 그리고 수퍼비전의 교육 준거 마련 등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무엇보다 상담전문가의 직무와 역할, 자질, 목표, 차별성 등에 대한 합의는 전문직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 국내에서는 현재 다양한 법령 속에서 심리상담사의 행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역할 정의는 명료하지 않다(권수영, 이신형, 황진태, 손재구, 2016). 그로 인해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상담전문가는 오히려 전문적 심리지원 인력으로서 체계적인 역할을 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이동훈, 강현숙, 2015), 상담기관이나 맥락에 따라 상이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이렇게 상담전문가의 역할에 대한 체계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담실무자들이 전통적으로 이어오고, 보편적으로 공유하며, 동시에 자생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전문가로서의 정체성과 역할 인식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이를 상담사 집단 내에서만 암묵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사회적으로 공표하는 작업은 더욱 중요하다. 실제로 미국상담학회에서 합의한 20/20 상담 정의는 주입법 옹호 활동이나 상담 라이센스 전환성(license portability) 등과 같은 중요한 전문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사적인 기반이 되었다고 평가된다(Kaplan et al., 2014). 학회원들에게 법제화 및 상담 관련법 제정이 무엇보다 절실한 요구인 상황 속에서(서영석 등, 2019) 상담 및 상담전문가의 역할, 조건, 목표, 과정 등에 대한 전문직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한 본 연구의 시도가 상담 관련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단단한 발판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둘째, 상담의 정의를 합의한 미국상담학회는 다양성과 사회정의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상담의 정의에 '지지(empower)'와 '다양성(diverse)', '사회정의'의 개념을 추가하였다. 국내 상담실무자들에게 '지지 및 임파워먼트'나 '사회정의 및 옹호' 개념이 점점 더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국제적 흐름과 상담의 근본적 철학에 비추어볼 때 매우 의미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정의 및 다양성의 중요성이 최우선순위로 강조되고 있는 미국에 비해 국내 상담실무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낮은 빈도로 나타났으며, 특히 다양성에

www.kci.go.kr

대한 언급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본 연구에서 상담실무자들은 인본주의적 관점과 자기답게 사는 삶을 추구하는 등 다양한 인간상을 수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었지만, 인종, 성적 지향, 종교,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대한 다문화적 관점을 드러낸 응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상담자 자신의 문화뿐 아니라 내담자의 문화를 이해하고 이러한 이해를 상담과정에 활용하는 다문화 역량, 그리고 내담자의 문제에 내재된 장벽을 발견하고 이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옹호 역량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고(이소연 등, 2018), 실제 상담 현장에서 다문화에 대한 상담전문가들의 관심과 역량에 대한 필요성이 결코 미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그에 대한 언급이 부재했던 것이다.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인종 민족적 소수자들에 국한되어 있던 다문화의 범위가 트라우마, 가족 다양성, 신체적 장애 등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는 추세다(김태선, 신주연, 2020; 임은미, 강혜정, 김성현, 구자경, 2018). 상담 자체가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다문화 상담'이라는 말이 어폐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임은미 등, 2018). 만약 특정 주제만이 다문화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식하여 그에 대한 참여자들의 언급이 없었던 것이라면, 이를 특정 영역으로 한정하거나 특별한 상담으로 분류하지 않고 삶의 철학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개인적, 사회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유능한 상담사란 상담사 개인에 대한 이해와 내담자의 심리세계에 대한 이해, 그리고 내담자의 문화와 환경에 대한 이해를 함께 포함한다는 일반적인 상담역량의 정의(Corey, 2017)에서 알 수 있듯, 내담자의 문제에 대해 다양한 문화적 맥락과 차이를 고려하는 다문화 상담역량, 그리고 내담자의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체계적 차별과 억압을 이해하고 개선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정의 상담역량은 일반적인 상담역량의 개념을 공유한다(임은미 등, 2018). 다문화 상담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문화 상담 관련 워크샵이나 교육프로그램, 수퍼비전, 실무경험 및 공개사례 회의 등 다문화 경험에 대한 노출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Weatherford & Spokane, 2013). 최근 상담사 교육과정에서 다문화 및 사회정의에 관한 교육을 공식적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아 실무 현장에서 상담사들이 어려움과 혼란을 겪는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면서(임은미, 구자경, 2019; 정지선, 2020; 주은선, 이현정, 2010), 폭넓은 의미의 다문화 및 옹호자 역할을 강조하는 상담 교육과정이 개발되고 있다(예, 김은하, 신윤정, 이지연, 2019; 정지선, 2020; 최연실, 조은숙, 2017). 그러나 다수의 상담실무자들이 자신의 직업적 정체성으로 다양성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상담전문가의 정체성 개념에 다문화 및 사회정의 역량이 포함되어 있음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 대의원 회의를 통해 상담의 정체성에 다양성, 사회정의, 임파워먼트 등과 같은 주요 개념을 포함시킨 미국상담학회와 같이, 한국상담심리학회 또한 상담심리사들이 다양성, 다문화 개념을 자연스럽게 체화할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가령, 학회에서는 주요 개념들을 포함한 전문가 역량을 제언하고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이를 검정 내용에 포함할 것을 고려하는 등 이론적 근거와 현장의 실제를 바탕으로 정체성 확립에 선두적 역할을 한다면,

www.kci.go.kr

대학원을 포함한 수련 및 교육기관에서도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커리큘럼이나 프로그램이 개설되는 등 유의미한 파급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결과는 수요자 관점을 반영하여 상담의 정체성을 조율해나가야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전문가로서의 관점에서만 상담을 바라보는 것은 내담자를 능동적 주체로 보는 상담의 정체성과 배치된다. 일부 일반인 참여자들은 약물 처방이나 치료와 상담을 구분하지 못하거나 자신이 미처 모르거나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심리검사 실시와 분석을 통해 시각화, 언어화하는 것이 곧 상담이라고 여기는 등 일반인들에게 상담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MacLeod 등(2016)의 연구에서도 일반인들에게 상담사에 대한 용어나 교육 정도, 역할 등에 대한 혼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상담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분야를 홍보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내담자들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상담 및 상담전문가의 역할이 상담실무자들의 인식과 다를 경우, 이를 어떻게 다루어가야 할지에 대한 논의와 공개적 소통장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상담실무자들은 상담을 정의하면서 '내담자'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언급하였고(n = 439), 상담이 내담자의, 내담자에 의한, 내담자를 위한, 내담자 중심의 활동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상담 대표기관인 한국상담심리학회에 내담자를 위한 창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서영석 등, 2019). 상담과정에서 상담전문가와 내담자가 서로의 인식과 기대를 조화롭게 일치시켜 가는 개별적인 작업도 중요하지만, 상담제공자와 상담수요자 간 불일치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일반인들을 정보 및 조율의 장으로 초청하는데 학회는 보다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을 학술대회 등에 초대하여 상담사의 정체성과 역할, 의미와 과제 등에 대해 교육하는 진로 프로그램, 현장에서 경험하는 내담자들의 요구와 그에 대한 상담사의 역할 등에 대한 공개토론 프로그램, SNS나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내담자 의견수렴 및 자문을 위한 소통창구 등을 개설하여 내담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내담자들의 이야기를 취합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 이는 일반인들에게 상담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인 동시에, 상담전문가들이 지닌 전문직 정체성이 언제나 내담자들의 의견이나 요구보다 우월하다거나 변화하지 않는다는 단호함을 내려놓는다는 반성적(reflectional) 전문성(Fook, 2000)에 대한 선언적 의미를 지닐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는 정신건강 전문영역의 협업이 강조되는 현시점에서 직무 간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최근 학교폭력, 빈곤, 차별, 만성질환 등 대중들이 경험하는 사회문제들은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고, 하나의 직업군이 이러한 난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심리 건강 분야 내 상호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Mellin et al., 2011).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상담실무자들은 정신건강 분야 간 직무특성 및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 다양한 역할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더욱이 상담실무자들이 상담에 대한 고유성을 명료하게 인

www.kci.go.kr

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 분야의 사회적 인식이 가장 낮거나 법적 지위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 협업 시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참여자들의 보고는 이와 관련한 학계 및 학회의 관심을 높이고, 관련 연구들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정신건강 분야 간 유사성과 독창성을 함께 고찰함으로써 상담(사)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자신의 직무 및 역할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인식이 바탕이 될 때 전문가는 내담자들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심리상담사들이 수련하는 과정 전반에 걸쳐 전문적 정체성 개발에 대한 개방적인 토론과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봉사, 옹호 및 학자로서의 활동을 더 포함시켜 우리의 전문적 가치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확충해나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학회의 학술위원회에서는 정신건강 분야 대표 학회들과 연계하여 정신건강 분야 직무특성에 따른 공통성과 특수성 관련 공동연구 수행을 추진할 수 있다. 대외협력위원회에서는 대정부 정책 외에도 지역사회 정신건강 협력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개설하고, 위기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와 유사하게 내담자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또는 통합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노력하되 상담전문가가 주체가 되어 명목상의 시스템이 아닌 실질적인 지침과 방안 마련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을 논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상담실무자들의 응답이 보유 자격증, 상담경력, 근무기관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집단별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담실무자들의 이론적 지향이나 세부 전문분야, 구체적인 발달단계 등에 따라 응답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지는 못했다. 후속 연구에서는 상담사 정체성 발달이론에 따라 본 연구에서 드러난 결과(상담 및 상담전문가의 정의, 인접 분야와의 구분 등)가 상담전문가의 구체적인 전문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상담 경험이 있는 일반인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주로 상담에 대해 긍정적인 경험을 했거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일반인들이 응답하여 상담 경험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가 충분히 담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들은 일반인들에게 확인하기 어려운 질문(예, 상담의 정의), 일반인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해 모호하고 인상적인 응답을 할 가능성이 높은 질문(예, 인접 분야와의 차이점) 등을 제외하고 그들이 쉽고 직관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질문들로 설문지를 구상하였으나, 이로 인해 상담실무자에 대한 설문 문항과 일반인들에 대한 개방형 질문 문항이 동일하게 구성되지 못했으며 표본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따라서, 두 상담 주체의 관점을 동등하게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참고문헌

곽미용, 이영순 (2010). 상담자 자격의 윤리적 문제. 인문학논총, 15(1), 235-253.

권수영, 이신형, 황진태, 손재구 (2016). 전문상담사의 국가자격화 논의를 위한 연구: 국

www.kci.go.kr

가직무능력표준(NCS)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7(4), 9-29.

금명자 (2002). 청소년 내담자와 상담자의 상담에 대한 기대 차이 및 문화적 특성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3), 529-546.

김은하, 신윤정, 이지연 (2019). 상담전공대학원생을 위한 다문화 상담 교과 과정개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1(4), 1321-1364.

김정현 (2010). 배제의 정체성을 넘어서: 열린 문화적 정체성 구축을 위한 모색으로서의 서사적 정체성 연구. 철학논총, 61(3), 1-32.

김창대, 권경인, 한영주, 손난희 (2008). 상담일반: 상담 성과를 가져오는 한국적 상담자 요인. 상담학연구, 9(3), 961-986.

김태선, 신주연 (2020). 다문화 시대의 상담자 교육: 비판적 의식과 상호교차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2), 667-692.

박애선, 황미구 (2008). 한국 상담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발전과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4), 903-929.

박한샘, 고은영 (2009). 상담일반: 청소년 동반자 활동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상담학연구, 10(4), 1971-1994.

백병성 (2014). 경찰 핵심가치의 인식에 관한 연구: 서비스제공자와 수요자 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16(4), 53-78.

서영석, 안수정, 안하얀, 이소연 (2019). 한국상담심리학회 현황 및 발전방안에 대한 학회원들의 인식 Ⅰ: 학회 제반 활동에 대한 학회원들의 만족도 및 요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1(4), 1365-1405.

서영석, 안하얀, 안수정, 이소연 (2019). 2019 한국상담심리학회 발전 로드맵: 학회원을 위한, 국민을 향한 KCPA. 한국상담심리학회: http://krcpanew.miraeinfo.kr/bbs/view.asp?page=1&rows=15&task=ins&bid=bid_6&bord050Seq=347897&boStartDatei=&boEndDatei=&searchText=에서 검색.

손난희, 김은정 (2007). 상담일반: 한국 사람들의 상담가에 대한 이미지. 상담학연구, 8(2), 483-492.

신원식, 이경은 (2005). 현장 사회복지사들의 사회복지 전문직에 대한 주관적 인식 유형-Q 방법론의 활용. 사회보장연구, 21(1), 59-84.

안하얀, 이소연, 서영석, 안수정 (2019). 한국상담심리학회 현황 및 발전방안에 대한 학회원들의 인식 Ⅱ: 포커스그룹 인터뷰 및 SWOT 분석 결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1(4), 1407-1439.

연규진, 이지미, 이수정, 이도형 (2016). 심리상담에 대한 인식: 개신교인을 대상으로 한 탐색적 질적 연구. 상담학연구, 17(5), 243-267.

유성경 (2005). 한국 대학생의 상담, 심리치료, 정신치료에 대한 태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5), 617-632.

유현실, 김창대 (2011). 진로상담전문가의 역량 모형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2(2), 241-268.

윤아랑, 정남운 (2011). 상담자 소진: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2), 231-256.

이동훈, 강현숙 (2015). 미국의 재난심리지원

www.kci.go.kr

체계 및 재난위기상담의 실제와 시사점. 상담학연구, 16(3), 513-536.

이소연, 서영석, 김재훈 (2018). 사회정의에 기초한 진로상담 및 직업상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3), 515-540.

이은경, 양난미, 서은경 (2007). 한국에서의 상담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3), 587-607.

임은미, 강혜정, 김성현, 구자경 (2018). 한국 상담자의 다문화 상담역량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상담학연구, 19(1), 421-442.

임은미, 구자경 (2019). 다문화 사회 정의 상담. 서울: 학지사.

이장호 (1982). 상담심리학. 서울: 박영사.

장성숙 (2002). 우리 문화에서의 상담자상. 한국상담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3), 547-561.

장유진 (2015). 상담의 전문직 정체성에 관한 질적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2), 539-568.

정민승 (2010). 평생교육사의 전문직 정체성 형성의 조건. 평생학습사회, 6(2), 151-167.

정지선 (2020). 다문화 및 사회정의 상담을 위한 상담자 교육과정.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1), 225-248.

주은선, 이현정 (2010). 결혼이주여성 대상 다문화 상담 관련 종사자들의 현장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4), 817-846.

최연실, 조은숙 (2017). 다문화가족상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연구. 가족과 가족치료, 25(2), 181-209.

허재경, 신영주 (2015). 여성상담자의 상담자 전문직 정체성 발달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0(4), 615-639.

홍혜영 (2006). 청소년의 상담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 상담학연구, 7(4), 1203-1219.

Bartolo, P. A. (2005). Regulating the psychology profession in Malta. *European Psychologist, 10*(10), 76-77.

Bauer, T. D. (2015). The effects of client identity strength and professional identity salience on auditor judgments. *The Accounting Review, 90*(1), 95-114.

Brodsky, S. L., & Galloway, V. A. (2003). Ethical and professional demands for forensic mental health professionals in the post-Atkins era. *Ethics & Behavior, 13*(1), 3-9.

Bronstein, L. R. (2003). A model for interdisciplinary collaboration. *Social work, 48*(3), 297-306.

Brott, P. E., & Myers, J. E. (1999). Development of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 identity. *Professional School Counseling, 2*(5), 339-348.

Campbell, J. (1996). Toward collaborative mental health outcomes systems. *New directions for mental health services, 1996*(71), 69-78.

Corey, M. S., & Corey, G. (2020). *Becoming a helper*(6th ed.). Belomt: Brooks/Cole, Cengage Learning.

Eddy, D. M., & Billings, J. (1988). The quality of medical evidence: implications for quality of care. *Health Affairs, 7*(1), 19-32.

Evetts, J. (2006). Short note: The sociology of professional groups: New directions. *Current Sociology, 54*(1), 133-143.

Fook, J. (2000). Deconstructing and reconstructing professional expertise. In B. Fawcett, B. Featherston, J. Fook, & A. Rossiter (Eds.).

www.kci.go.kr

Practice and Research in Social Work. London: Routledge.

Fall, K. A., Levitov, J. E., Jennings, M., & Eberts, S. (2000). The public perception of mental health professions: An empirical examination.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22*(2), 122-134.

Gale, A. U., & Austin, B. D. (2003). Professionalism's challenges to professional counselors' collective identity.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1*(1), 3-10.

Garland, A. F., Lewczyk-Boxmeyer, C. M., Gabayan, E. N., & Hawley, K. M. (2004). Multiple stakeholder agreement on desired outcomes for adolescents' mental health services. *Psychiatric Services, 55*(6), 671-676.

Gibson, D. M., Dollarhide, C. T., & McCallum, L. J. (2010). Nontenured assistant professors as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division presidents: The new look of leadership in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8*(3), 285-292.

Goodman, L. A., Liang, B., Helms, J. E., Latta, R. E., Sparks, E., & Weintraub, S. R. (2004). Training counseling psychologists as social justice agents: Feminist and multicultural principles in action.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2*(6), 793-836.

Goodyear, R. K., Murdock, N., Lichtenberg, J. W., McPherson, R., Koetting, K., & Petren, S. (2008). Stability and change in counseling psychologists' identities, roles, functions, and career satisfaction across 15 year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6*(2), 220-249.

Hall, R. H. (1968). Professionalization and Bureaucratiz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3*(1), 90-104.

Healey, A. C., & Hays, D. G. (2011). Defining counseling professional identity from a gendered perspective: Role conflict and development. *Professional Issues in Counseling, 11*(2), 9-23.

Hill, C. E. (2012).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A practical resource for investigating social science phenomena.*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Kaplan, D. M., Tarvydas, V. M., & Gladding, S. T. (2014). 20/20: A vision for the future of counseling: The new consensus definition of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92*(3), 366-372.

Kearney, R. C., & Sinha, C. (1988). Professionalism and bureaucratic responsiveness: Conflict or compatibility?.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8*(1), 571-579.

King, N., & Ross, A. (2003). Professional identities and interprofessional relations: Evaluation of collaborative community schemes. *Social Work in Health Care, 38*(2), 51-72.

Lewis, B. L. (2010). Social justice in practicum training: Competencies and developmental implications. *Training and Education in Professional Psychology, 4*(3), 145-152.

MacLeod, B. P., McMullen, J. W., Teague-Palmieri, E. B., & Veach, L. J. (2016). What does the public know about professional counseling? A study of public knowledge and perception of professional counselors. *Journal of Counselor Leadership and Advocacy, 3*(2), 95-110.

Mahoney, M. J., & Craine, M. H. (1991). The

www.kci.go.kr

changing beliefs of psychotherapy experts. *Journal of Psychotherapy Integration, 1*(3), 207-221.

Marcia, J. E. (196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ego identity statu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 551-558.

MacDonald, K. M. (1995). *The sociology of the professions*. London: Sage.

Mellin, E. A., Hunt, B., & Nichols, L. M. (2011). Counselor professional identity: Findings and implications for counseling and interprofessional collaboration.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9*(2), 140-147.

Moss, J. M., Gibson, D. M., & Dollarhide, C. T. (2014). Professional identity development: A grounded theory of transformational tasks of counselor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92*(1), 3-12.

Myers, J. E. (1992). Wellness, prevention, development: The cornerstone of the profession.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1*(2), 136-139.

Owens, E. W., & Neale-McFall, C. W. (2014). Counselor identity development: Toward a model for the formation of professional identity. *Journal of Counselor Leadership and Advocacy, 1*(1), 16-27.

Ratts, M. J., Singh, A. A., Nassar McMillan, S., Butler, S. K., & McCullough, J. R. (2016). Multicultural and social justice counseling competencies: Guidelines for the counseling profession. *Journal of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Development, 44*(1), 28-48.

Smith, H. B., & Robinson, G. P. (1995). Mental health counseling: Past, present, and future.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4*(2), 158-162.

Spangler, P. T., Liu, J., & Hill, C. E. (2012).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for simple qualitative data: An introduction to CQR-M. In C. E. Hill (Ed.),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A practical resource for investigating social science phenomena* (pp. 269-283).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Wampold, B. E., & Budge, S. L. (2012). The 2011 Leona Tyler Award Address: The relationship-And its relationship to the common and specific factors of psychotherapy. *The Counseling Psychologist, 40*(4), 601-623.

Wantz, R. A., & Firmin, M. (2011). Perceptions of Professional Counselors: Survey of College Student Views. *Professional Counselor, 1*(1), 71-81.

Waxman, R. P., Weist, M. D., & Benson, D. M. (1999). Toward collaboration in the growing education-mental health interface. *Clinical Psychology Review, 19*(2), 239-253.

Weinrach, S. G., Thomas, K. R., & Chan, F. (2001). The professional identity of contributors to the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Does it matter?.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9*(2), 166-170.

Wennberg, J. E. (1988). Improving the medical decision-making process. *Health Affairs, 7*(1), 99-106.

원 고 접 수 일 : 2020. 09. 18
수정원고접수일 : 2020. 12. 02
게 재 결 정 일 : 2020. 12. 19

www.kci.go.kr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21, Vol. 33, No. 1, 113-158

Study on the Professional Identity of Counselors

Soo Jung An[1)] **Ha Yan An[2)]** **Young Seok Seo[3)]**

[1)]Yonsei University, Graduate student
[2)]Yongmoon Graduate School of Counseling Psychology, Professor
[3)]Yonsei University, Professo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professional identity of counselors and the counseling field. This included counselors' professional identity-related self-perceptions, perceptions of how their professional identities differ from adjacent fields, and how the general public perceives counseling and counselors. To this end, data were collected from 926 members of the Korean Counse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 with KCPA certificates, and 328 ordinary people with counseling experience. Data were analyzed using CQR-M. The results indicated that counseling practitioners defined counseling through the goals of counseling, the process of counseling, and the qualifications and roles of counseling professionals. In addition, they perceived the uniqueness of counseling as compared to adjacent fields in terms of tools, human view, areas of interest, roles, qualifications and qualities, and clients. Based on the results, the implications for the KCPA as they consider redefining their future vision are discussed.

Keywords : counseling, professional counselors, identity, clients, differences from adjacent fields, CQR-M

www.kci.go.kr